

# 中國哲學의 孕育期

金 忠 烈 \*

## 〈目 次〉

- |                        |                         |
|------------------------|-------------------------|
| 1. 中國文化의 遠景            | 3) 民生의  터전을 開闢한 禹       |
| 1) 文化의 持續性과 淵源性        |                         |
| 2) 口傳과 記錄의 信憑性         | 3. 殷代思想 - 抽象의 神思觀念의 抬頭  |
| 3) 孔子의 三代思想 概說         | 1) 殷朝의 興起               |
| 2. 夏代思想 - 素朴한 自然主義의 形成 | 2) 殷文化의 概觀              |
| 1) 夏朝의 實在 確認           | 3) 殷代의 宗教 - 神權觀念과 祖上 崇拜 |
| 2) 堯舜禹의 人格과 功德         | 4) 夏殷思想의 集成 - 洪範九疇      |

## 1. 中國文化의 遠景

### 1) 文化의 持續性과 淵源性

人類가 文化·文明을 창조해 낸 基本工具는 知識이다. 知識은 어떤 全知, 全在, 全能한 「神」이 있어 人間에게 啓示한 것도 아니고, 이른바 「天縱之聖」이나 「生而知之」한 神人이 있어 一時에 突發的으로 創出해 낸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갓난아기와 같은 無知蒙昧한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自然의 變化하는 現象과 人間의 삶의 문제를 反覆觀察하고 經驗을 累積하며, 反省과 試行을 거듭하면서 漸次로 터득하고 蓄積해서 이루어진 人類 자신의 所産인 것이다.

\*哲學科教授

西青散記의 다음 글은 先民들의 知識生産의 歷程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암시를 주고 있다. 「내 갓 낳았을 때 날이 갑자기 어두었다 밝았다 하는 것을 두려워 했더니 어른들은 그것이 밤과 낮임을 가르쳐 주었고, 사람들이 갑자기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니, 어른들은 그것이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이 箕星이고 어떤 것이 斗星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어느 것이 까치고 어느 것이 까마귀인지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주니, 이것이 知識의 시작이었다. 자라남에 밤과 낮, 태어남과 죽음이 점차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더니, 意識을 太虛에 돌리어 세상을 굽어보기 시작하면서 밤과 낮, 삶과 죽음의 문제는 애뜻한 情을 느끼게 하였다.…」<sup>1)</sup> 이것이 이른바 先民들의 境의 認識과 情의 蘊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위 글에는 갓난 아이에 대해 이미 知能을 갖춘 어른이 있었지만, 原始民들에게는 知識을 전달해 줄 先知者가 있을리 없다. 그리하여 先民들에게 있어 최초의 스승이 되어 준 것은 바로 自然萬有의 變化現象이었다. 周易에 「하늘의 日月星辰, 땅의 山河草木, 그것들은 變化하는 象을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느끼고 알게 했다. 총명예지한 사람은 이를 헤아리고 본받았다. 天地의 變化現象은 한결같이 順理적이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知識으로 받아들이고, 蘊蓄된 知識으로 그 變化를 미리 알아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sup>2)</sup>고 한 말과 같이 先民들은 自然을 스승으로 하여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知識을 배웠다. 이것이 先知者의 출현이다.

1) 史 林: 「西青散記」 自序 「餘初生時怖夫天之乍明乍暗, 家人曰 晝夜也. 怪夫人之乍有乍無曰生死也. 教餘別星, 曰孰箕斗, 別禽, 曰孰鳥鵲, 識所始也. 生而長 乍明乍暗, 乍有乍無者, 漸不爲異. 間放紛紛混混時自提其神於太虛而俯之, 覺明暗有無之乍者, 微可悲也……」.

2) 周易繫辭: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法象莫大乎天地, 變通莫大乎四時, 縣象著明, 莫大乎日月……故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天之所助者順也, 人之所助者 信也 履信思乎順, 又以尚賢也……過此與往 未之或知也, 窮神知化 德之盛也」.

中國 中原에 新人(Homo sapience)이 나타난 年代를 周口店 上頂洞人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약 15,000~20,000 년으로 볼 때, 이른바 孔子가 祖述했다는 堯舜의 출현은 그다지 먼 옛이야기가 아니며, 상당한 知識과 人格을 갖추고 있었다는 傳説이 아주 허왕된 것만도 아닐 것이다.<sup>3)</sup>

孔子가 「자기는 옛것을 傳述할 뿐, 創作하지는 않았고, 옛것을 믿고, 또 좋아했으며, 스스로 殷나라의 어진이 老彭에 비진다」<sup>4)</sup>고 한 말은 孔子가 결코 중국문화의 창시자가 아니며 오랜 세월을 두고 傳授된 先民들의 文化를 傳受받고 이를 또 後世에 傳授하는 繼往開來的 位置와 役割을 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孔子 이전의 中國文化를 追求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의 考古學이나 文化人類學의 발전은 孔子가 미처 몰랐던 일까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興件과 可能性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준다.

孔子는 그도 말했듯이 옛 것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빈약한 文獻 때문에 傳述에 制限을 받고 만족스러울 만큼 옛 것을 밝혀내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그는 말하기를 「殷은 夏禮를 因襲하였으니, 夏禮를 안다면 殷禮의 어느 부분이 損益된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周는 殷禮를 因襲했으니 이 또한 어느부분이 損益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sup>5)</sup>고 하여 中國文化의 一貫된 因襲性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殷과 夏代는 오래되어 그 禮制가 어떤 것인지 證明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 하며 말하기를 「夏禮의 대략을 내가 말할 수는 있으나 夏의 後裔가 산다는 杞國을 가보았지만

3) 周口店 上頂洞은 1933년 裴文中에 의해 발견되어 1934년까지 발굴되었는데, 여기서 발견된 新人化石과 여러 遺物은 지금으로부터 약 18,000 내지 16,000년전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신인시대에는 자연환경에 따른 지역적인 성격의 문화가 분명하여 지고 부족사회의 발생의 가능성이 보이며 종교사상과 예술의식이 일어났다」 尹乃鈺 : 「中國의 原始時代」, p.90~109 참조.

4) 論語 述而篇 :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5) 論語 爲政 :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

實證을 찾을 수 없었고, 殷禮 또한 그의 대략은 말할 수 있으나, 그 後代가 산다는 宋國을 가 보았으나 역시 實證을 구하지 못했다. 그것은 두 나라가 다 文獻이 不足해서 이다. 文獻만 足하다면 내가 그 實證을 써 낼 수 있었을 것이다」<sup>6)</sup>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周禮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듯 「周나라의 禮制는 夏殷兩朝의 禮를 監修 또는 거울삼은 것으로 文獻이 足할 뿐 아니라, 그 內容이 찬란하므로, 나는 周나라 禮를 따른다」<sup>7)</sup> 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夏殷二代의 存在와 그 나름의 禮制가 있었음을 孔子가 是認하고, 다만, 文獻不足으로 밝게 傳述하지 못하여 가까운 周代文物만을 따를 뿐 夏殷二代는 置而不論 한다고 한 태도이다.

솔직히 말해서 孔子는 우리보다 약 2500년 앞선 사람이지만, 夏殷代에 대한 지식은 現代人만 못하였다. (물론 傳說的으로 들은 것은 있었겠지만) 그것은 現代에는 考古學의 발달로 殷代 文字가 발견되고, 其他 여러 文化的 遺物이 많이 발굴되어 그 시대를 연구하는 좋은 資料가 되고 있기 때문이며, 夏代文物도 차츰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sup>8)</sup> 孔子가 「文獻이 足하면 내 능히 實證하리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이미 文獻과 資料가 나온 이상, 夏殷代를 研究한다는 것은 孔子의 遺志이기도 한 것이다.

6) 論語八佾篇：「子曰，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文獻不足故也，足則，吾能徵之矣」.

7) 論語，八佾篇：「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吾從周」.

8) 1957년 中國大陸，洛陽平野 동쪽 偃師縣 서남쪽 9킬로미터에 있는 二里头村 남부에서 古遺迹을 발견 1973년까지 발굴작업을 계속, 그 初期것은 夏文化에 속한다고 보고되었으며, 대규모의 宮跡도 발견되었다. 世界華學季刊 第二卷 第四期, pp. 41~45, 高木森 「對夏文化的新看法」 참조.

## 2) 口傳과 記錄의 信憑性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文字는 殷墟에서 나온 甲骨文字로, 멀리 잡아야 紀元前 15世紀부터서야 文字記傳(written tradition)이 가능했다고 보며, 그 이전은 아무래도 口傳(oral tradition) 시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文字가 생긴 뒤는 자연 그 당시의 일을 그 당시의 표현능력정도에서 記錄하였을 것이고 또한 文字以前の 口傳을 文字化 했을 것이며, 또 그것들은 文字의 發達, 文章力의 向上에 따라 增飾 또는 修訂되었을 것이 사실이다.

대개 古文化國들의 原始的 著述은 먼저 口傳이 있었고 뒤에 그것을 文字化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口傳은 어느 한 사람, 한 시대의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에 의해 오랜 세월을 두고 相傳해 온 것이기 때문에 古代文化의 한 集體的 傳達로 보아 무방할 것이며, 그것에는 상당한 진실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sup>9)</sup> 그것은 人性이 아직 淳朴하고 言語의 기교나 별다른 意圖가 介在되어 있지 않은, 어쩌면 宗教的, 또는 宗族的 遺産으로 授受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古代傳說을 무조건 부인할 것만 아니라, 그 당시의 표현術을 연구하여 그 당시를 헤아리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大經(詩, 書, 禮, 樂, 易, 春秋)도 먼저 口傳이 있고 뒤에 記錄化한 것이다.<sup>10)</sup> 그 記錄化의 시기를 늦춰잡아 殷周之際(B.C. 약 12세기)에서 春秋 이전(孔子가 刪訂하기 전, BC 약 7세기)으로 본다면 이 약 500년 간이 古代口傳의 文字化와 당시 일어났던 史實을 記錄한 하나의 文字記傳時期(age of written tradition)로 볼 수 있다. 이 때 西周의 歷史記錄은 당시의 記錄으로 볼 수 있으나, 殷

9) 方東美先生 演講集, p.138, 139 참조.

10) 皮錫瑞「經學歷史」에 이르기를 「經學開闢時代, 斷自孔子刪定大經爲始」라고 있는데 여기서 開闢時代란 그를 研究, 效法함을 말할것일테고 따라서 그의 形成은 西周時代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夏에 관한 歷史는 아무래도 口傳을 文字化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西周의 文字, 文章수준 및 그 때 이미 형성되어 있던 意識 觀念. 價值基準으로 옛날 口傳속의 人物과 事件을 叙述했을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考古學上 아직 초보연구단계에 있는 夏代文化 思想을 연구함에 있어, 여전히 「待考」라는 여두리를 들 수 밖에 없다.

孟子가 「書(尙書)의 記錄을 다 믿으면, 그 書가 없었던 것만 못하다」<sup>11)</sup>고 한 것은 口傳의 純朴性보다는 文字記錄이 오히려 쓸데 없는 添削을 일삼아 古代文化의 遠景을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지적으로써 좋은 教訓이 된다 하겠다. 그러나 董作賓씨도 말했듯이 紙上材(文獻 文字記錄)가 주요, 地下材料(出土遺物)는 副일진데, 나로써는 아직까지도 尙書 중에 記錄된 夏代文化思想을 일단 믿고 싶다. 그 이유는 文字記錄이란 결국 口傳에 의한것이니까) 다만, 周初思想水準에서 본 夏代文化描寫를 고려해서 하나의 文化淵源의 한 遠景으로 提示할 뿐이라는 所見만은 침부하여 둔다. 考古學과 文化人類學이 멀지않아 夏代도 殷代와 마찬가지로 傳說時代가 아니라 歷史時代라는 것을 明白하게 밝혀 주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 3) 孔子의 三代思想 概說

梁啓超는 그의 著 「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에서 中國學術의 胚胎期를 第一 黃帝時代, 第二 夏禹時代, 第三 周初時代, 第四 春秋時代로 잡으면서, 「上古의 歷史는 黃帝에 이르러 一變하고, 夏禹에 이르러 一變하고, 周初에 이르러 一變하고, 春秋에 이르러 一變했다. 그러므로 文明精神의 發達過程도 이에 따라 時代區分을 할 수 있을

11) 孟子, 盡心下; 「盡信書則不如無書, 吾於武成, 取二三策而已矣, 仁人無敵於天下, 以至不仁, 而何其血之流杵也」. 趙岐注曰: 「武王以至仁代至不仁, 殷人頓食豐饗而迎其王師, 何乃至於血流漂杵乎, 故吾取武成兩三策可用者耳, 其過辭則不取之也」.

것이다」라고 文明精神의 發展段階를 제시하고 있다.<sup>12)</sup>

일반적으로 중국사람들은 자기네들은 黃帝의 子孫이라고 自認하고 文化의 起源, 建國의 起源, 歷史의 起源을 모두 黃帝로부터 실마리를 잡고 있다. 司馬遷 史記에 의하면 黃帝의 姓은 公孫, 名은 軒轅이며, 少典의 아들로써, 태어나면서 총명하고 敦敏하게 자라나 神農末世의 混亂을 수습하고, 이어 炎帝와 阪泉에서 싸워 이기고, 포악한 尤를 鹿에서 죽인 뒤 神農을 대신하여 天子가 되었다.<sup>13)</sup>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460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孔子는 黃帝에 대한 言及이 없고, 그는 막바로 堯舜을 祖述한다고 하여 적어도 孔子의 文化思想의 실마리를 堯舜으로부터 풀고있는 것이다.<sup>14)</sup> (堯舜은 唐虞사람으로 紀元前 23.4 세기에 해당하며, 夏는 禹로부터 시작하여 紀元前 23 세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論語에서는 夏, 殷의 禮制에 대해서 「不足徵」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禮記, 表記篇에서는 오히려 三代文化思想의 概要를 자신있게 斷定하고 있는 것을 보면, 夏殷시대의 禮制에 관해서는 文獻不足으로 不足徵이나, 夏殷周三代文化의 概括的인 樣相에 대해서는 傳說이나, 이를 바탕으로 記錄했을 尙書의 虞夏書 즉 堯典, 舜典, 禹貢등을 참고하고 나름대로 把握되는 것이 있어 자기 判斷을 내렸던 것 같다.

그리하여 筆者는 梁씨의 「中國哲學胚胎期四期說」과는 달리 孔子의 「祖述堯舜, 憲章文武」說을 바탕으로, 胚胎期를 三分하여, 第一期 虞夏時代(B.C 약 2300 - 1800), 第二期 殷商時代(B.C. 약 1800 - 1200)

12) 梁啓超, 「飲水室文集」 中華書局本, p. 45.

13) 司馬遷史記, 五帝本紀第一참고. 錢穆: 「國史大綱」 p. 6에 의하면, 「如史記言黃帝東至海空桐, 南至江 登熊湘, 北逐葷粥, 合符釜, 而邑於涿鹿之阿. 後人遂疑其行踪之超迷 近於神話. 不知崆峒本在 河南境. 熊湘與崆峒同在一省 釜山者覆釜山一名荆山與華瀆爲近.

14) …然則黃帝故事. 最先傳說只在河南斗 西兩省, 黃河西部一隅之圍子裏與舜禹故事相差不遠. 司馬遷 自以秦漢大一統以後之眼光視之, 遂若黃帝定跡遍天下耳. 此就黃帝傳說在地理方面加以一新解釋而其神話之成分遂減少…」

第三期 成周時代(B.C. 약 1200-700)로 잡았다. 이 三時期의 文化思想을 孔子는 다음과 같이 概括하였다.<sup>15)</sup>

(1) 虞夏時代: 夏나라의 文化思想은, 人間이 삶을 寄托하고 있는 이 「自然」의 運行과 그 作用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事鬼敬神 같은 非實在的인 것의 追求를 멀리 하였고, 人間 삶의 切實한 문제를 가까이 하였다. (文化的 特徵) 福祿을 중히 여기고, 威權 같은 것을 가볍게 여겼으며(價値觀), 勸賞을 앞세우고, 懲罰을 뒤로 했으며, 사람들은 서로 平等하게 대하여 아직 上下貴賤등의 差別이 생기지 않았다(社會制度). 그리고 夏나라 사람들의 弱점을 지적한다면, 그들은 아직 어리석고 未開하여 質朴함을 숭상하고 文彩를 몰랐다(文化程度).

(2) 殷商時代: 殷나라 사람은 祖上神을 숭배하였고, 백성들을 거느려 神을 섬겼으며, 鬼神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히 여기고, 사람들 사이의 禮節을 가벼히 했다.(文化特徵). 懲罰을 우선하고 人功에 대한 勸賞은 뒤로 하였다(價値觀). 이렇게 具體的인 人間보다 抽象的인 神의 존재가 特重됨에 따라 같은 사람에 있어서도 尊貴와 卑賤이 나누어져, 종래의 平等觀念이 무너졌다(社會制度). 殷나라 사람들의 폐단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質朴하게 農耕에만 힘쓰지 않고, 非實用的인 일을 일삼기 좋아하여 점차 巧詐해져 갔다는 것이다(文化傾向).

(3) 成周時代: 周나라 사람은 禮를 숭상하고 教化를 중히 여겨, 事鬼敬神은 하되 멀리했으며, 人間의 문제에 성실히 파고들었다(文化特徵과 價値). 그들의 賞罰은 爵列에 따라 행해지고, 사람의 존재를 존중히 여겨 平等視하고 統治者를 절대시 하지 않았다(社會制度). 구태어 周나라 사람들의 弱점을 지적한다면 그들은 文化가 발전함에 따라 巧詐해

15) 禮記卷 17, 表記第 32 참조. 原文: 「子曰: 夏道尊命, 事鬼敬神而遠之, 近人而忠焉. 先祿而後威, 先賞而後罰, 親而不尊. 其民之敝傲悻而愚, 喬而野, 朴而不文. 殷人尊神率民以事神, 先鬼而後禮, 先罰而後賞, 尊而不親, 其民之敝, 蕩而不靜, 勝而無恥. 周人尊禮尚施, 事鬼敬神而遠之, 近人而忠尊, 其實罰用爵列, 親而不尊, 其民之敝, 利而巧, 文而不慙賊而蔽」.

지고, 質보다 文을 숭상하여 實在보다 虛禮를 일삼는다는 것이다(文化傾向).

孔子는 다시 三代思想을 綜括해서 말하기를 「夏나라의 法度는 命令이나 辭章을 숭상치 않아, 모든 制度가 具備되어 있지 않았고, 백성들을 크게 動用하는 일이 없어, 백성들은 통치자들을 친근히 여겼다. 殷나라 사람들은 아직 禮를 숭상치 않아, 백성들에게 예의규범 같은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周나라 사람들은 民의 존재를 崇高하고, 鬼神을 迷信의으로 신앙하지 않고, 人事規範이 복잡해지면서 禮樂刑罰이 窮究되었다.」<sup>16)</sup> 孔子는 또 말하기를 「虞夏의 道는 백성들에게 원망이 적었지만, 殷周의 道는 사람들의 淳朴性이 깨어져 巧詐로 인해 나타나는 폐단이 자못 컸다.」 「虞夏의 質과 殷周의 文은 각기 지극함이 있다. 그러나 虞夏의 文은 그 質을 이기지 못하고, 殷周의 質은 그 文을 이기지 못했다」<sup>17)</sup>고 하였다. 「文質彬彬」<sup>18)</sup>을 理想으로 했던 孔子의 眼目에서 볼때, 三代文化思想은 殷은 夏보다, 周는 殷보다 文化的으로 發展한 것은 사실이나 각기 偏依되어 그 中을 잃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梁啓超는 그의 胚胎期의 文明을 結論짓기를, 「胚胎時代의 文明은 實際를 重히 여기는 것으로 第一義를 삼았다. 實際를 중히 여겼으므로, 人事를 중히 여겼으니, 그들의 敬天思想은 人倫의 模範으로 取用되었다. 또 實際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經驗을 중시했으니, 그들의 祖上崇拜思想은 모두 先例의 典型으로 取用되어, 이에 思想으로부터 발전하여 學術이 된 것이다」<sup>19)</sup> 하였다.

16) 上同, 「子曰, 夏道未瀆辭, 不求備, 不大望於民, 民未歷其親, 殷人未瀆禮, 而求備於民, 周人強民, 未瀆神, 而賞爵刑罰窮矣」.

17) 上同: 「子曰: 虞夏之道, 寡怨於民, 殷周之道, 不勝其敝. 子曰: 夏禮之質, 殷周之文至矣, 虞夏之文, 不勝其質, 殷周之質, 不勝其文」.

18) 論語, 雍也篇: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19) 梁啓超: 「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 p.8 참조.

筆者는 앞의 孔子의 三代思想 概觀과 總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三代思想의 時代의 特徵을 提起하고자 한다. 즉, 夏代는 사람들의 關心이 人間對「自然」에 쏠리어 素朴한 自然主義를 形成했고, 이어 殷代에는 사람들의 自然에 대한 把握이 일단락 지워지자 다시 關心이 人間對「神鬼」로 轉換하여 抽象的인 宗教意識이 擡頭되었으며, 素朴한 自然主義에서 民生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다시 人間의 關心이 非實在的인 抽象觀念의 神鬼문제에 치달아, 그에 따라 上下縱的인 世界觀이 형성되고 또 그와 비례해서 統治者와 被統治者의 關係가 上下縱的인 것으로 규정지워져 絕對神聖不可侵的인 王權이 탄생되었다. 이로 인한 人們의 被害가 커지자, 周代에는 이러한 人間 자체에서 일어난 悖害를 불식하고자 다시 人間對「人間」즉, 人間의 自己有察을 위한 人文主義가 追求되었다는 생각이다. 이에 筆者는 夏代는 素朴한 自然主義의 形成, 殷代는 抽象的인 神鬼觀念의 擡頭, 그리고 周代는 道德的인 人文精神의 啓發이라는 三代思想의 特性을 想定해 보았다.

## 2. 夏代思想 - 素朴한 自然主義의 形成

### 1) 夏朝의 實在確認

1959년 중국 河南省, 偃師縣, 二里岡 二里頭 地方에서 夏나라 桀이 세웠을 것으로 추측되는 宮殿遺址가 발굴되었다. 약 1만평방키로미터에 달하는 이 宮址는 正方形에 堂, 廡, 庭, 門등이 설계되어 있었고, 그 輪廓이 뚜렷하여 자못 壯觀을 이루었으며, 遺物로 青銅器인 爵, 戈, 과 鏃, 칼 그리고 鎌, 등의 農器具가 있었고, 玉으로 된 戈, 圭와 挂飾등도 있었으며, 이 밖에 樂器와 卜骨등이 나왔다. 아깝게도 이들 遺物에는 文字가 없었다. 방사성탄소측정 년대는 B.C. 1920 ± 115 또는 1900 ± 130 이었다고 한다. 이로써 紙上記錄에만

있던 夏나라의 存在는 地下材料에 의해 그 實在가 확인된 셈이다.<sup>20)</sup>

이제 남은 문제는 夏나라의 享有年代와 그 時代의 文化程度인데, 아직 考古學的 發掘과 研究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우선 地上材料에 의해 計算해 보면, 后稷에서 毀<sup>21)</sup>에 이르는 7代 約 250년을 감안하고, 商湯이 夏桀을 滅한 年代를 B.C. 약 750으로 잡을 때 夏나라의 及年代는 B.C. 약 2,000년대까지 올라가고, 그 享有年代는 약 250-300년으로 간주된다.

또 地域的으로 볼 때, 鄭州一帶는 夏나라 사람들의 主要活動 무대였다. 夏禹가 治水했다는 곳이 黃河와 濟水 流域이었고 夏桀이 통치한 領域은 鄭州以東의 黃河와, 濟水 流域이었고 夏桀이 통치한 領域은 鄭州以東의 黃河와, 濟水를 중심해서 西로 河南極西, 渭水南쪽의 華山, 北으로 太行山, 南으로 伊闕에 이르렀다고하니 二里岡, 二里頭文化의 出現地인 鄭州는 夏領土로 치면 동쪽의 中心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는 中國大陸全般에서 볼 때 黃河의 中流地帶로서 渭水의 東, 濟水의 西, 淮水와 漢水 中間의 北쪽에 位置하여, 이른바 中原文化圈<sup>22)</sup>에 속하며, 이 地域은 農業에 適合하여<sup>23)</sup> 夏는 일찍부터 農耕에 들어갔고 따라서 紡績, 牧畜, 建築, 陶窯등이 발달했다고 한다.

20) 二里岡, 二里頭文化에 대해서는 尹乃鈺: 「中國의 原始時代」, p.453-487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1) 后稷 - 不鞠 - 鞠 - 公劉 - 慶節 - 皇僕 - 差弗 - 毀諭. 國語, 周語에 「昔我先王后稷以服事虞夏 及夏之衰也, 棄稷不務, 我先王不務, 用失其官而自竄, 于戎狄之間」이라고 史記에 「后稷之興在陶唐虞夏之際...后稷卒子不窋立...不窋卒子鞠立, 鞠卒子公劉立...公劉卒子慶節立...慶節卒子皇僕立, 皇僕卒子差弗立, 差弗卒子毀諭立」 毀諭는 夏桀末期에 해당한다. (以上史記·周本紀 참조).

22) 中國古代文化의 흐름을 크게는 「中原文化」와 「東方文化」 두 갈래로 보는데 中原文化는 仰韶文化를 이어 받은 夏朝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러던것이 夏朝가 殷에 의해 滅亡되자 두줄기의 文化는 하나로 모아졌다고 한다.

23) 張其鈞: 「中華五千年史」 第一冊遠古史, p.9-11에 의하면 中國의 農業은 丘陵地帶에서 일어났는데 淮水, 漢水 사이 伏牛山地帶이 옛 神農氏의 탄생지라고하며 이地帶를 中國農業의 發祥地로 보고있다. 이 地帶는 바로 夏나라 사람들의 活動地였다.

二里頭地方에서 大規模의 宮闕터가 발굴되었다는 것은 바로 夏나라의 文化程度를 集約적으로 알려주는 材料가 된다고 하겠다. 夏나라 마지막 王, 桀이 宮殿建築에 奢侈를 極했다<sup>24)</sup>고 傳하는것과 이 二里頭的 宮址를 대조해 보면, 옛 記錄이 그렇게 허망한 것 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만큼 建築을 하자면, 人力動員, 建材採集, 建築技術, 審美感覺, 規模構想등 이미 精神, 物質, 藝術, 技術 그리고 大規模의 統治力이 상당한 水準에 올라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 했을 것이므로, 이때에는 이미 文化思想이 나타난 時期에 접어들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夏朝를 물리친 殷朝는 夏朝가 이미 農耕文化에 들어가 있을 때 아직도 遊牧단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夏朝가 殷朝보다 古遠하다고 해서 殷代보다 未開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殷나라는 夏나라의 文化的 基盤을 이어 받아 급성장을 한 것이므로 殷文化는 바로 夏文化의 因襲으로(文化持續性)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2) 堯, 舜, 禹의 人格과 功德

중국에는 神이 인간으로 轉化했다는 傳說은 드물고, 偉大한 人格者가 死後에 神으로 昇化했다는 이야기는 많다. 이러한 特殊性에서 볼 때 中國古史에 나오는 堯, 舜, 禹등 人物의 實在性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死後에 民族神 또는 기타 崇拜대상으로 이를테면 神格化한 것은 사실이다.

살아있는 동안 人類生存에 크게 有益한 일을 한 사람은 죽은 후 神格化 해서 祭祀대상이 되고 오래도록 기려진다.<sup>25)</sup> 이것을 중국사람들은 「不朽」(永生)라 한다. 옛날부터 「不朽」의 業績을 크게 세가지로 구

24) 古竹書紀年에 「夏桀作傾宮飾淫臺, 作瑤室」이라고 있다.

25) 禮記, 祭法篇에 「夫聖王之制祭祀也, 法施於民則祀之, 以死勤事則祀之, 以勞定國則祀之, 能禦大災則祀之, 能捍大患則祀之…」라고 있다. 이는 중국 옛사람들이 天地山川에만 祭祀지내다가 뒤에 오면서 人物(有公)을 神格化해서 祭祀지냈다는 증거이다.

분했다. 그 첫째가 立德이요, 둘째가 立功이며 셋째가 立言이다.<sup>26)</sup> 이를 三不朽라 한다. 이 不朽의 基準에서 볼 때, 堯, 舜, 禹는 단연 중국역사 최초의 「不朽」의 業績을 남긴 人物이다. 구태어 堯, 舜, 禹의 業績을 三不朽중 어느 不朽에 비중이 큰가를 생각해 보면, 堯는 立德에 舜은 立言에 그리고 禹는 立功에 비중이 크다고 여겨진다. 물론 세사람은 三不朽를 모두 갖춘 聖人이지만, …….

紀元前 20세기 경 堯舜禹三聖이 서로 이어서 出現했다는 것은 中國文化의 早熟( Chinese Prececocious Culture )을 의미한다. 서양의 Egypt, Greece, 印度 등은 모두 長期間의 神話時代를 거쳐서 紀元前 8, 9세기에 가서야 成熟한 人格이 나타나지만, 중국은 그보다는 적어도 千年앞서서 光明燦爛한 超升된 人格者가 天地間의 모든 迷霧를 驅散하고 온 누리를 밝게 비추면서 나타났다.<sup>27)</sup> 이렇게 갑자기 理性的 倫理의 人間世界가 形成되었기 때문에 Greece의 Homer나 Hesiad 또는 Indo의 Vedas 같은 作品이 없다. 이것이 中國哲學史에 있어서 前秦期가 缺乏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中國에서 제일 오래되었다는 尙書의 堯舜에는 막바로 萬世의 師表가 될 圓熟한 人格者에 대한 讚美로부터 시작된다.

#### (1) 中國의 理想의 人間像 - 堯

중국사람들이 精神上으로 가장 尊敬하고, 가장 心醉해서 向往하는 人物은 바로 堯와 舜이다. 孔子가 「祖述堯舜」이라고 하였고, 孟子도 「言必稱堯舜」<sup>28)</sup>이라 할 만큼 堯는 原始儒家가 人間을 教化하는데 가장 理想의인 標像으로 내세우는 人物이다. 그러던 먼저 堯의 人格과 功德은 어떤 것이고, 後世에 儆刑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① 人格感化 : 그의 人格은, 「그자신 敬虔하고, 明敏하고, 文雅하고,

26) 春秋左傳, 襄公 24年條: 「約聞之大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 雖久不廢, 此之謂不朽. 若夫保姓受氏, 以守宗祚, 世不絕祀, 無國無之, 祿之大者不可謂不朽」.

27) 方東美: 「中國哲學之精神」第一講, 月刊「哲學與文化」通卷 44, p.7.

28) 孟子, 滕文公上.

思慮的이며 溫和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지극히 恭順하고 禮讓을 갖추어, 그 人品의 高明함이 四方에 미치고, 그의 精誠은 天地를 感動시켰다. 또 그의 功德은 個人的 圓熟하고 高尚한 人格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여 먼저 九族을 感化시키고, 九族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을 教化했으며, 나아가 온 天下를 平和롭게 하였다」<sup>29)</sup> 이는 일반적으로 宗教에서 내세우는 教主의 位置나 功能과 다름없다. 다만, 그는 現世間 外의 어떤 超世間이나 來世를 열어주는 教主가 아니라, 바로 現實世界 속에서 人間의 德性を 가꾸고 키워서 現實, 現世를 昇華하고 美化하려는 世間的 帝王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智德을 갖춘 人格 溫讓한 人間關係, 自己의 아름다운 品德을 남에게 미치게하는 感化力, 이로써 修身→濟家→治國→平天下의 大道를 完成시켰으니 後世爲主의 儒家에 있어서 이보다 더 바랄 儀刑이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堯의 이러한 人格과 品德과 感化力 그리고 平天下의 治績은 바로 儒家의 太陽이 된 것이다.

② 測天謀生: 堯는 먼저 人間 자신을 다스려, 道德人格으로 教化한 다음, 우리가 삶을 맡기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自然環境에 대한 把握(測天)에 힘썼고, 특히 農耕에 필요한 氣候變化에 대해서 實用的인 知識을 追求하여 사람들의 生活을 安定시켰다. 그는 「羲知에서 命하여, 정성스레 하늘의 運行과 땅의 形勢를 살피게 하고 年月日時의 替遷과 氣候季節의 變化를 파악하여 백성들에게 農耕(生長收藏)의 時期를 알리게 했으며, 또 羲仲, 羲叔등에 命하여 東西南北을 가려서 春夏秋冬에 따른 寒暖暑涼에 맞추어 衣食起居등 生活을 하도록 가르쳤으며, 一年을 365일로 定하고, 閏月을 두어 餘日을 補充하였다. 그리고 여러 官署를 두어

29) 尚書堯典: 「帝堯,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 格于上下. 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既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

여러일을 다스리게 하니 백성들의 삶이 모두 興盛했다.]<sup>30)</sup> 이는 原始農耕社會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天時地利를 헤아리는 것(治國要道在於測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天時에 맞추어 農耕을 營爲하고, 地理에 맞게 生活施設을 갖추고, 氣候와 季節에 적합하도록 衣食을 取하며, 여러 사람들의 共同事를 官署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으니, 이는 古代國家로서는 그 基本을 모두 갖추었다 하겠다.

③ 治山治水: 人間들이 共同社會 속에서 眞實하게 서로 信義를 지키며, 自然環境을 把握하여, 그에 맞게, 生活터전을 꾸미고, 春夏秋冬 農事를 지어 衣食을 해결한 다음, 堯가 부닥친 일은 洪水의 被害였다. 이에 堯는 禹의 아버지 鯀에게 命하여 9년동안이나 治水케 하였으나, 실패하자, 그를 處刑하였다.<sup>31)</sup> 결국 이 사람들이 中原 땅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存亡이 달린 中國曆史上 一大事는 뒤에 鯀의 아들 禹에 의해 다스려졌는데, 이 때 부터 中國 政治의 第一問題는 「治山治水」였으며, 이는 20세기까지도 未解決의 宿題로 전해왔다.<sup>32)</sup>

④ 禪讓制度: 사람의 壽命은 有限하다. 堯도 有限生命의 人間이다. 그러므로 個人에서 國家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事業은 다시 뒤에 오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天下大權을 引繼해 주는일에 있어서랴? 이 때 무엇보다도 動搖되기 쉬운 것은 私心에 의해 大權을 요리하므로써 永遠히 자기 子孫에게 天下를 傳하려는 欲心이다. 그러나 中國最初의 政權移讓은 天下에서 가장 어진 사람을 薦學해서 그의 賢과 能을 충분히 試驗한 다음 大權을 넘겨주는 禪讓制度로

30) 上同, 「乃命羲和, 欽若昊天, 歷象日月星辰, 敬授人時. 分命羲仲宅 旻日暘谷, 寅出日, 平秩東作. 日中, 星鳥以殷仲春, 厥民析… 晉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開月定, 四時成歲. 允釐百工, 庶績咸熙」.

31) 上同, 「咨, 四岳, 湯湯洪水方割, 蕩蕩懷山襄陵, 浩浩滔天, 下民其咨. 有能俾乂 兪曰於 鯀哉, 帝曰味弗哉, 方命圯族, 岳曰異哉, 識可乃己, 帝曰往欽哉, 九載績用弗成」이 때 治水의 실패는 洪水通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독을 쌓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았다고 傳한다.

32) 들리는 바에 의하면 黃河의 氾濫은 毛澤東에 의해 다스려졌다고 함.

시행되었다. 이에 物望에 오른 이가 舜이다. 賢者를 발탁해 쓰는 것은 帝王의 第一義務이다. 그래서 「野無遺賢」이란 말이 있는데, 執權者の 賢否는 바로 그 「用人」에 있었던 것으로 堯는 사람을 씬에 輕信도 하지 않았거니와 또 輕用도 하지않는 慎重性을 보였다.

기실 禪讓制度란 오늘의 間選制와 비슷하다. 먼저 堯는 四岳(四方의 酋長)에게 자기의 異位의 뜻을 밝히고 각자 適任자들 推薦해 줄것을 要請한다.<sup>33)</sup> 이에 薦學된 이가 舜인데, 그가 薦學된 名分은 父母에게 孝順하고, 兄弟間에 友愛가 있어 人間관계가 和睦하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의 賢良함을 높이 산것이다. 그러나 그의 能力은 출지에 大權을 料理할만 하지 않았으므로 堯는 舜을 起用하되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시험해서 三年間의 考績을 거친 뒤 帝位를 물려줄 것을 결정한다.<sup>34)</sup> 三年동안의 考績 속에는 堯가 두 딸을 舜에게 주어 그 家庭을 어떻게 다스려가지를 살펴보는 것도 끼어 있었다.<sup>35)</sup> 이러한 考績을 28년간이나 겪은 끝에 堯가 죽자 舜은 帝位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堯가 죽자 바로 帝位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舜은 다시 天下萬民의 信任을 묻기 위해 堯의 아들 丹朱를 避했다가 백성들의 選擇(堯의 아들 丹朱를 따르느냐, 舜을 따르느냐 하는)에 따라 비로소 帝位에 나간 것이다.

堯는 몸소 사람들의 儀表가 되어 백성을 感化시키고 天下를 教化한

33) 上同, 「咨四岳, 朕在位七十載, 汝能庸命 贊朕位」.

34) 上同, 「岳曰, 有鯀在下, 曰虞舜. 帝曰, 俞, 予聞, 如何? 岳曰, 鯀子, 父頑, 母嚚, 象傲, 克謹以孝, 烝烝乂, 不格姦, 帝曰, 我其識哉」. 「帝曰, 格汝舜, 詢事考言, 乃言底可績, 三載, 汝陟帝位, 舜讓于德弗嗣」.

35) 上同, 「女子時, 觀厥刑于二女. 釐降二女子於嬀汭, 實于虞. 帝曰欽哉」.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린다는것은 天下를 다스리는것 보다 어렵다고 한다. 하물며 帝王의 귀여운 딸에 있어서라? 그러나 舜은 堯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과 道義에 찬 家庭을 영위하여 더욱 堯의 信任을 받았다. 二女의 이름은 娥皇과 女英이다. 이 두 딸은 舜이 巡狩를 나갔다가 蒼梧山에서 죽자, 설마 설마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찾아가 舜의 죽음을 직접확인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 피눈물이 湘江의 내나무에 묻어 斑竹이 되니 이를 湘斑竹 또는 湘妃竹이라 부른다.

中國의 女流詩人, 李淑은 斑竹怨이라는 詩를 써서 二 妃의 넋을 위로했다.

「二妃昔追帝, 南奔湘山間. 有淚灑斑竹, 至今斑竹斑」.

「雲深九疑廟, 日落蒼梧山. 餘恨在江水, 滔滔去不還」.

德治主義의 先行者이며, 天時·地利·人事를 調和시켜 自然을 讚美하고 自然에 順應하면서 農耕을 營爲케 한 人文世界의 開拓者이며, 天下의 公道에 따라 爲民, 養民, 保民을 합한 즉 治者로서의 義務가 무엇인가를 確示하여 天下는 天下民에 의해, 天下에서 가장 賢能者에 맡겨져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治道の 理想을 率先해서 施行하므로써 中國政治思想史의 本流를 열어놓은 帝王 중의 帝王이다. 뒤에 나온 儒家가 中國歷史上 최초로 나타난 人格의 超升者로 堯를 내세우는 데는 그가 現世間에서 人間中心으로 人間의 理想을 펴는데 기틀을 잡았기 때문이다. (道家계열에서는 주로 黃帝를 理想人物로 내세우고 있다).

## (2) 人倫의 垂範者 - 舜

舜의 人格도 堯와 마찬가지로 智, 德, 能을 兼備하였으며, 그 純眞 誠實한 人品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家庭사람들을 感化시키고 天下를 教下함에 이르렀으니, 그 道德을 세운 功 또한 堯와 다를바 없다 하겠다. 다만 舜은 歷山 아래서 밭갈고 짚그릇을 굽던 賤人으로서 帝位에까지 나아갔다는 成就의 過程이 있고, 특히 人間倫理의 儀表가 되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하겠다.<sup>36)</sup>

① 五倫創制: 舜은 天下의 大孝다. 아버지는 우둔한 성품을 가진 瞽瞍(瞎子)이었고, 어머니를 일찍 여이어 모친 繼母을 맞이하였으며, 異腹동생은 십술 곳은 象이었다. 이러한 복잡한 家庭에서 不幸한 幼年을 보낸 사람에게 있어서 父母에게 효도하고 동기간에 우애를 지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老子는 「六親이 不和해야 孝者가 나온다」고 하기도 하였지만, 舜의 경우도 오히려 그러한 逆境에서 孝友를 다했기 때문에 孝로써 이름이 나고, 그로 말미암아 堯에게 발탁되기에 이른것이 사실이다. 不遇한 家庭에다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 이 또

36) 尙書(僞故) 舜典에 「帝舜, 曰重華, 協于帝, 脩哲文明, 溫恭允塞, 玄德升聞」이라 있다.

한 어려운 人倫관계가 아닐 수 없다. 그 후 公職에 나아가서 일에 충실하고, 어른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잘 가르쳤으니, 이 모두를 합하면 바로 五倫을 몸소 圓滿하게 갖춘 셈이 된다. 즉 위로 父母에 孝順하고, 兄弟 간에 우애있고, 夫婦 和合하고, 君國에 忠實하고, 長幼의 질서를 지켰으니, 이것이 뒷날 儒家에서 말하는 五倫의 原形인 것이다.

舜이 帝王候補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五倫을 制定하는 것이었다. 堯典에 「慎徽五典, 五典克從」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뒤이어 그는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內政을 安定시켰고, 賓客맞는 일을 맞아 外交를 和穆케 하였으며, 山林과 水澤을 다스리느라 모진 風霜을 겪어야 했다.<sup>37)</sup> 확실히 舜은 人性의 善한 면을 보여주고, 誠實과 勤勉과 忍耐를 쌓아, 下民에서 부터 帝位까지, 「始乎士而終乎聖」「下學而上達」의 可能性을 실제로 온 天下에 垂範한 사람이다.

② 法刑制定: 舜은 仁慈한 사람이다. 仁慈할수록 善과 惡을 분명히 하고, 善을 올리고, 惡을 누르는 勇氣를 갖는다. 舜은 法典을 만들어, 賞罰을 行하고 度量衡器등 標準法을 만들어 交易에 供하였으며, 官署의 職을 確定하여 자기 所任을 다하게 하였다.

舜은 即位하자 文祖에 祭祀지내고, 七政을 바르게 하였으며 諸侯들에게 信符를 주어 四年마다 來貢하게 하고 天子는 五年에 한번 巡狩하도록 定했다. 또 天下의 度量衡을 同一하게 하고, 官刑 教刑을 만들어 어진이를 발탁하고, 典刑을 만들어 害惡한 者와 叛逆하는 자를 물리쳤다. 이에 禹로 司空(建設)을, 棄로 后稷(農耕)을, 契로 司徒(文教)를, 皋陶로 士(理民)를, 垂로 共工(製器)을, 伯으로 秩宗(宗祀)을, 夔로 樂官을, 그리고 龍으로 納言(興論)을 맡게 하였으며, 害惡한 자 共工을 幽州에, 驩兜를 崇山에 流放하고, 治水에 실패한 鯀을 죽였으며, 三

37) 尙書, 堯典, 「慎徽五典, 五典克從. 納于百揆. 百揆時敘. 賓于四門, 四門穆穆. 納于大麓, 烈風雷雨弗迷」. 五典의 뜻에 대해서는 左傳文公 18年條에 「舜臣堯…使布五教于四方, 父義, 母慈, 兄友弟共, 子孝, 內平外成」이라고 있다.

苗族을 三危로 몰아냈다. 뿐만아니라, 天下事를 公論에 의해 公明正大하게 처리하기 위해 四門을 열어놓고, 賢俊을 맞아들였으며, 백성들의耳目을 바르게 하여 天下에 막히고 가리워진 일이 없도록 하였다.<sup>38)</sup>

특히 舜의 處刑方法은 「刑期于無刑」(刑罰은 刑罰을 없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精神아래 刑罰은 當代, 當事者에서 그치고 鯀의 아들 禹를 重用한 것이 그의 例), 賞은 子孫에게 까지 미치도록 했으며 차라리 罪人을 놓칠지언정 無辜한 사람이 벌을 받는일이 없도록 保護主義를 택하여 天地好生之德을 본받아 실행했다.<sup>39)</sup>

③ 心法傳授 : 이상에서 보면, 舜은 仁義, 剛柔, 情理를 兼顧한, 이른바 「中庸」을 갖춘 人物임을 알 수 있다. 孔子가 「舜은 智慧로운 분이셨다. 舜은 사람들의 일을 묻고, 살펴서 輿論에 귀를 기울였으며 善을 扶揚하고 惡을 抑制하였다. 그 兩端을 들어서 그 中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셨으니 이것이 舜의 위대한 면이다」<sup>40)</sup>라고 評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中國哲學思想史의 입장에서 볼 때, 舜은 人倫重視의 풍조를 형성하고 道統의 端緒를 열었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바로 「中」을 立身, 治世, 應萬變의 大本으로 하는 心法傳授다. 이 心法이란 堯에서 舜으로, 舜에서 다시 禹에게로 傳해진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舜은 禹에게 天下의 大權을 넘겨주면서 다음과 같이 訓誡하였다. 「하늘의 歷數가 너에게 있어 너는 마침내 帝位에 오른것이다. 人心은 危殆

38) 以上, 尙書, 虞書, 舜典, 大禹謨, 益稷등을 참고. 單語들이: 「文祖」는 堯의 廟, 「七政」은 日, 月과 五星(金, 木, 水, 火, 土) 즉 曆法을 말함.

38) 虞書, 大禹謨에 「帝曰, 卑陶, 惟茲罔庶, 罔或于豫正. 汝作士, 明于五刑, 以弼五教, 期于豫治. 刑期于無刑, 民協于中, 時乃功, 懋哉」라 있고, 또 皋陶에 「帝德罔愆, 臨下以簡, 御象以寬. 罰弗及嗣, 賞延于世. 宥過無大, 刑故無小.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輕. 好生之德, 洽于民心, 茲用不犯于有司」라 있다.

39) 中庸, 第 6 章: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迩言, 隱惡而揚善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40) 虞書, 大禹謨: 「天之歷數在汝躬, 汝終陟元后.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無稽之言勿聽, 弗詢之謀勿庸. 可愛非君, 可畏非民. 兼非后何戴, 后非兼 與守邦. 欽哉. 慎乃有位. 敬修其可願」.

롭고, 道心은 隱微하므로, 오직 精一을 期해야만 그 中을 잡을 수 있다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황당무계한 말은 듣지를 말고, 熟讀되지 않은 計謀는 쓰지를 말라. 백성은 君王을 목숨같이 여기니 君王된 者 모름지기 百姓을 사랑할 것이요, 君王이 잘못하면 民은 叛逆할 것이니, 民을 두려워할 줄 알라. 百姓이 君王이 없다면 어찌 統一될 수 있으며, 君王은 百姓이 아니면, 어떻게 나라를 지켜가겠는가? 오직 자신의 마음을 늘 경건하게 가지고, 너의 그 帝位를 삼가 지켜 너와 백성들의 願하는 바를 성취시켜라. ……」<sup>41)</sup> 이 訓誡중에서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16字를 朱子는 聖聖相承의 道統心法이라 했고<sup>42)</sup>, 그의 弟子 蔡沈은 集傳에서 이것을 풀이 하기를 ; 「心이란 사람의 知覺으로써 內의 主體가 되어 外의 事變에 應하는 자다. 그것이 形氣에서 發한 것을 가리켜 人心이라 하고, 義理에서 發한 것을 일러 道心이라 한다. 人心은 私事를 기 쉬워 公明正大하기가 어려우므로 위태롭고, 道心은 밝혀내기가 어렵고, 묻혀있기 쉬우므로 隱微하다 한 것이다. 오직 精粹하게 살피어 形氣의 私에 混雜되지 않게 이로써 지킨다면, 義理의 正에 純然해서 道心이 늘 主가 되고, 人心이 그 命에 따르게 된다. 그러면 위태로운 것은 平安하게, 隱微한 것은 著明하게 되어 動靜云謂함에 過不及의 差가 없이 진실로 능히 그 『中』을 잡게 되는 것이다」<sup>43)</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中」字의 概念은 中國哲學思想의 그야말로 中心이 되는 概念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宇宙全體를 包括 統攝하는 概念이고, 一切에서 一로, 一에서 一切으로 주고 받는 中庸, 中和, 時中의 관계와

41) 朱子中庸章句序 참조. 16字중 「允執厥中」 녀자는 堯가 舜에 傳한 것이고, 그와 12字는 舜이 堯의 말을 實行하는 方法으로 보태어 禹에게 傳한 것이다.

42) 蔡沈, 「書集傳」 참조. 原文: 「心者, 人之知覺, 主於中而應於外者也. 指其發於形氣者而言, 則謂之人心; 指其發於義理者而言, 則謂之道中. 人心易私而難公, 故危; 道心難明而易昧, 故微. 惟能精以察之, 而不雜形氣之私, 一以守之, 而純乎義理之正, 道心常爲主, 而人心聽命焉. 則危者安, 微者著. 動靜云謂, 自無過不及之差, 而信能執其中矣」.

43) 方東美, 「中國哲學之精神」(第一講)에서 참고했음.

기능을 代表하는 符號이다. 이는 또 漢書永谷傳에 「建大中以成天心」(至極한 中을 세워서 天地之心을 體得한다)라고 한 것처럼, 자기의 位置를 正하고, 周圍萬變에 適應하는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中을 잃으면 天地도 位할 수 없고, 萬物도 生成될 수 없으며, 사람이 사람됨을 지킬 수도 없다. ○이 天地의 存在形相이라면, ϕ은 天地, 萬物, 人間이 그 位置를 正하고, 그 德을 펴서 誠(成)으로 가는 功能姿勢이며, 그것이 動發해서 適合하지 않는 데가 없는 것은 ϕ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어디에 가도 適中和合하는 것을 莊子は 「得其環中, 以應無窮」(그들레속의 中心點을 얻으면 外變에 應하는데 不足함이 없다) 이라고 했다.<sup>44)</sup> 이렇게 보면 「中」은 儒家 뿐 아니라 道家에서도 主要概念으로 삼고 있음을 알겠다. 이 「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 洪範九疇 皇極條에서 하기로 한다.

이상은 舜의 人格, 功德, 業績, 그리고 傳道에 대한 概述이다. 이를 다시 中國哲學思想史상의 位置와 內容에서 생각한다면, 舜은 道統上으로는 堯의 傳道를 繼承發展시킨 人物이며, 內容상으로는 人倫, 특히 孝를 垂範하고, 中國哲學의 中心概念이 된, 「中」의 心法을 確定해서 後世에 垂教한 先知先覺者라 하겠다.

### (3) 民生의 터전을 開闢한 禹

中國歷史上, 中國民族에게 가장 큰 功勞를 세운 사람은 禹라고 推仰하는 것은 古今에 異論이 없다. 그만큼 禹의 功勞는 中國有史以來 일어난 모든 大難, 大患을 물리쳐 民生의 安定을 회복시킨 사람들의 본보기와 功勞大小의 標準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孟子가 楊朱墨翟의 道를 물리친 功은 禹에 못지 않다고 하거나, 宋明理學者들이 韓愈가 道佛의 異端을 排斥함은 孟子和 같고 禹에 버금한다고 말하는 것 뿐이 그

44) 虞夏書, 皋陶謨: 「禹曰: 洪水滔天, 浩浩懷山襄陵, 下民昏墊. 予乘四載, 隨山刊木, 暨益奏庶鮮食. 予決九川, 距四海, 濶暎浚, 距川. 暨稷播奏庶艱食, 鮮食, 憑遷有無化居, 蒸民乃粒, 萬邦作乂」.

것인데, 禹는 실지로 中國民族의 文化發祥地인 中原을 洪水로부터 건져내어 삶의 굳건한 터전이 될 수 있게 한 民生地盤의 開闢者였던 것이다.

① 水土平伐 : 禹는 앞서 治水에 실패하여 舜에게 죽임을 당한 바 있는 鯀의 아들이다. 그는 九年 동안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治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舜에 의해 重用돼 계속 治水의 大任을 맡았다. 그는 말하기를, 「洪水가 하늘가에 넘치고, 浩浩한 물길이 山을 감돌고 언덕을 넘어, 백성들이 물에 陷沒됐다. 나는 수레, 배, 썰매, 가마 등을 타고 다니며 산의 나무를 베어, 길을 내고 물고기 짐승고기로 배를 채웠다. 山허리를 잘라 물길을 터서 아홉개의 큰 내를 바다로 疏通하고, 물이 빠져나간 陸地에 곡식을 심고 집을 지어 백성들의 住食을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群民들의 생활은 安定되고 여러나라가 다스려졌다」<sup>45)</sup> 고 하였다.

이는 그 자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功勞야말로 크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독을 쌓아 물을 가둠으로써 마침내 더 큰 피해를 보게한 실패를 거울삼아 經驗과 實驗을 통한 知識과 익힌 技術을 동원하고, 九年 동안 집 앞을 지나면서도 한번도 집에 들리지 않았다는 奉公犧牲의 정신으로 대업을 완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는 地形을 파악하여, 決山通水하는 방법을 써서 물을 바다로 흘러 보내므로써 丘陵과 平野를 되찾았다. 오랜 세월 山과 물을 돌아다니면서 魚鱉禽獸와 草根木實을 試食하여 보고,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과 먹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물이 빠진 뒤 丘陵과 平原을 耕作하여 農耕에 힘쓰게 했다. 이른바 백성을 塗炭에서 건져냈다는 것이 이를 두고 말할일 것이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功이 또 어디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決山通水를 하여 九州의 물길이 제자리를 잡고, 隨山刊木하여

45) 上同 : 「九州攸同, 四瀆既宅, 九山刊旅, 九川旣源, 九澤旣設, 四海會同」.

各州마다의 길이 트이자, 中原의 九州는 하나의 統治領域으로 들어왔다.<sup>46)</sup> 이는 사실상 中原을 統一하는 始初가 된 것이니 中原의 開闢者라 아니할 수 없다. 禹는 이 水土를 平伐하여 民生의 地盤을 安定시킨 功으로 舜으로부터 大權을 물려받은 것이다.

② 養民政治 : 帝位에 나아간 뒤, 禹가 힘쓴 것은 民生問題였다. 그는 말하기를, 「帝王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智德은 善政을 베푸는 根本이 되고, 政治의 義務는 백성들을 잘 먹여살리는데 있다는 것을……, 水, 火, 金, 木, 土, 穀의 여섯가지 物質을 힘써 노력하여 豊富하게 儲蓄할 수 있게 하고, 正德으로 物質生活을 啓導하고, 物質을 아껴서 最大限으로 利用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豐饒롭게 하는 것이 政治의 目的인데, 그럴려면 上下萬民이 和合協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政治란 德治만으로는 不足<sup>47)</sup>하다고 하였다. 이는 政治란 德治만으로는 不足하고, 德으로 백성을 教化함과 함께 物質生活도 풍족할 수 있도록 民生經濟에 힘써야 비로소 政治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새로운 政見이기도 하다. 水, 火, 金, 木, 土, 穀을 「六府」라 하고, 正德利用, 厚生을 「三事」라 한다. 이 六府와 三事を 합친 것이 「九功」인데, 이러한 概念들은 우리나라 朝鮮朝後期 實學者들이 많이 引用하던 것들이다.

③ 人代天工 : 水土를 平伐하여 中原을 사람이 살 수 있는 人寰으로 개벽하고, 道德政治의 教化와 함께 物質生産에 힘쓰게 하며 生産된 物質을 有用하게 쓰는 制産, 治産의 方法을 研究하여 經濟政治를 새로 開發했으니, 이는 民生問題에 새로운 章을 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도 다스리기 어려워서 한마디로 生存이나 滅亡이나의 判건이었던 洪水問題를 人間의 智慧와 能力으로 解決해 있었다는 것은, 늘 自然에 굴복하고,

46) 虞書, 大禹謨 : 「於, 帝念哉, 德惟善政, 政在養民, 金, 木, 水, 火, 土, 穀惟修, 正德, 利用, 厚生惟和, 九功惟敘, 九叙惟歌」.

47) 虞書, 皋陶謨, 「天工人其代之」.

自然을 畏懼만 해오던 사람들에게 克服과 打開의 自信力을 심어준 快樂였다. 마침내 「하늘의 뜻도 사람에게 의해 대신 실현된다」<sup>48)</sup>는 人文世界 創進의 意志를 탄생시킨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오늘날 禹를, 中國 最初의 科學者, 工程師(土木建築家)로 추대하는 것도, 그로부터 人間의 知能과 技術이 人間의 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는 轉機가 마련되었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사람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4) 世襲制度: 中國 政治思想史에서 그렇게도 理想的인 것으로 말하여지는 禪讓制度는 唐堯에서 虞舜으로, 虞舜에서 夏禹로, 三代를 내려온 것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즉 禹는 天下의 大權을 그의 아들 啓에게 傳하므로써 새로이 世襲制度가 생겼으니, 이는 20세기 초 中華民國이 서기까지 持續되어 朝代마다 世襲制에 의해 政權이 이어지고, 朝代가 바뀔 때에는 革命方法에 의해 새로운 朝代가 생기곤 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禹의 至大한 功勞는 그가 天下의 大權을 사사로이 자기의 자식에게 傳했다는 것 때문에 적잖은 蕩滅을 받기도 하나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禪讓制度에는 賢人이 在世해야 한다는 前提가 있어야 하는데, 世代마다 賢人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實在의 問題를 놓고 韓愈는 「對禹問」이라는 글을 지어 世襲制度의 不可避性을 말하고 있다.

「어찌인을 얻어서 帝位를 傳한 이는 堯舜이요, 어찌 이를 얻지 못해 大權을 자식에게 傳한 이는 禹다. 後世로 올 수록 세상은 다스리기가 어려워져서, 大權을 남에게 넘긴다면 大權을 잡기위한 爭奪이 그칠 사이

48) 韓愈: 「對禹問」, 原文: 「得其人而傳之者, 堯舜也. 無其人, 慮其患而不傳者禹也, 時益以難理, 傳之子則爭未前定也. 傳之子則不爭前定也. 前定難不當賢, 猶可以守法, 不前定而不遇賢, 則爭且亂. 天下之生大聖也不數, 其生大惡也亦不數. 傳諸人, 得其大聖然後, 人莫敢爭. 傳諸子, 得大惡然後, 人受其亂. 禹之後四百年然後得湯與伊尹, 不可待而傳也. 與其傳不得聖人, 而爭且亂, 孰若傳諸子, 雖不得賢, 猶可守法」.

가 없게 되므로 자식에게 傳하기로 정해 놓으면 그러한 爭奪을 미리부터 막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미리 後繼者를 定해 놓으면 비록 어진이가 아니더라도 守法은 할 수 있으나, 미리 定해 놓지 않았다가 어진이를 만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天下가 聖人을 내는 것이 자주있는 일이 아니고 또한 大惡을 낳는 것도 자주있는 일이 아니다. 남에게 傳할 경우, 大聖을 얻은 뒤에야 사람들이 감히 다투지를 못하고, 자식에게 傳할 경우 大德을 얻은 연후에야 사람들은 그禍를 입는다. 禹의 뒤 400년을 지나서야 湯과 伊尹이 나왔다. 湯과 伊尹을 기다려 傳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聖人을 얻지 못해 爭亂이 일어나게 하는 것 보다는 비록 어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傳하는 것이 守法을 하는 방도가 되었던 것이다.<sup>49)</sup>

韓愈의 이 말은 펍 설득력이 있는 글이기는 하나, 여전히 受肯 못할 根本問題를 남겨준다. 그것은 堯의 아들이나, 舜의 아들이 다 같이 帝位에 나아갈 욕망을 품고, 그것이 잘 되지 않자 非行을 저지른 것 처럼<sup>50)</sup> 帝王의 자식에게 位가 전해질 수 있도록 法이 定해진다면 누구나 帝位에 나가고자 하는 욕망을 지녀서, 비록 大聖이 나온다해도, 그 帝位를 양보할 리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世襲制가 한번 정해지면, 다시는 賢人政治는 기대할 수 없고, 고작 武力的 革命에 의해서나 政權교체의 기회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 힘의 政治만이 亂舞하게 되는 것이다. 이 弱點을 補救하기 위해 생긴 것이 宰相制度이긴 하지만, 그것도 賢人政治를 되살리지는 못하였다.

政權交替制度 문제로 禹가 때로 責難을 당하기도 하지만, 禹는 中原에 中國民族이 터전을 닦고 본거지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한, 즉 中國民

49) 孟子, 萬章上과 史記五帝本紀에 堯舜禹 禪讓之際에 王子들의 反撥이 있었다는 記錄이 있다.

50) 馬端臨: 「文獻通考」卷 47. 官制總論에 「以經傳所載考之, 則自伏羲而至帝堯, 其所命之官, 大率爲治曆明時而已」라고 한것은 堯堯 때는 주로 天文曆象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다.

族에게 生活터전을 열어 준 開拓祖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보면 堯, 舜, 禹는 中國의 人倫과 歷史와 文化를 여는 文明의 黎明期를 장식한 中國先民 중의 先知·先覺이며, 民生에 필요한 人倫, 農耕, 政治등을 始創, 始制, 始定한 사람들이라 하겠다.

이제 唐虞三代의 思想을 集約해 보면 이 때는 遊牧상태에서 農耕社會로 定着된 뒤라, 農耕營爲에 가장 영향이 큰 自然을 이해하고, 그의 變化作用을 파악하는데 智者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天文에 대한 파악이 堯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취되자<sup>51)</sup>, 다음으로 일어난 문제가 人間과 人間의 관계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虞舜에 와서는 人倫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舜에 의해 五倫이 制定되고 이와 함께, 政制, 教制 등에도 눈을 돌려 모든 질서가 制度化 되어가는 국면을 보였다. 그 다음 洪水期를 거치면서 中國文明에 커다란 轉換을 가져오는데, 이 時期는 禹의 山川地理形勢의 파악, 黍稷耕作的 改新, 그리고 自然의 變化에 끌려만 가던 人間들이 人間의 힘으로 自然의 橫暴를 극복하여 「人工代天」의 自信力を 갖추게 되는, 진정 人間中心의 人文主義를 創進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기로서, 中國文化의 基礎를 奠定한 時代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唐虞三代에도 原始迷信宗教 형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超越의이고 物魅 중심의 宗教는 점차 現實爲主의 理性 아래 그 怪力亂神의 樣象을 벗어버리고 天地日月, 山河大地, 祖上 등 人間實在生活과 연 관되는 대상에 국한되기에 이르렀다. 禳災祈福의 태도에서 感謝와 反省, 즉 道德倫理의 領域으로 바뀌어진 것이다.<sup>52)</sup> 이상의 생각을 다시

51) 虞書 舜典에 「正月上日 受終于文祖. ……肆類(祭天之名)于上帝, 禋(祭祀(前)之名)于六宗(日月四時), 望(祭山川之名)于山川, 備于群神」. 이런 기록이 있다. 이는 原始宗教가 「祭祀」의 형태로 變質했음을 알려주는 말이다 하겠다.

52) 司馬遷, 史記卷2. 夏本紀: 「帝孔甲立, 好方鬼神事淫亂, 夏后氏德衰, 諸侯畔之. ……帝桀之時, 自孔甲以來, 而諸侯多畔. 而桀不勝德而武, 傷百姓, 百姓不堪, 迺召湯而囚之夏臺. 已而釋之, 湯係德諸侯皆歸湯, 湯遂率兵以伐夏桀, 桀走鳴條, 桀謂人曰: 吾悔不遂殺湯於夏臺, 使至此. 湯乃踐天子位, 代夏朝天下, 湯封夏桀之後至周封於杞也」.

몇마디로 集約한다면, 唐虞三代는 素朴한 自然主義가 形成되고, 人倫과 民生, 政制 등의 基盤이 難型的이나마 發軔된 時代라고 하겠다.

夏朝는 기원 전 19세기중엽 경, 孔甲에 이르러 衰退하기 시작하여 諸侯들의 반발이 일어나더니, 桀에 이르러 더욱 더 사치를 일삼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하여, 마침내 殷湯에 의해 滅亡하고(B. C. 18세기 중엽) 새로 들어선 朝代가 殷商이다(湯이 商丘에서 일어났음으로 商이라 했고, 盤庚이 殷으로 遷都해서 또 殷이라 했다).

### 3. 殷代思想 — 抽家的 神思觀念의 抬頭

#### (1) 仰韶文化와 龍山文化의 合流

##### — 中國文化의 原型을 이룩 —

湯은 契의 後裔로 처음엔 亳에 살았다. 考古學의 報告에 따르면 殷은 龍山文化의 대표적인 部族으로 오랜기간 游牧生活을 영위하였다. 그들은 敬祖와 神權을 숭상하여 이를 중심으로 家族組織과 部族의 團合을 強化하고 周圍의 여러 部族, 「雀」, 「方」, 「越」, 「羌」등을 統合, 크게 勢力을 떨쳤다. 그들은 東에서 서쪽으로 進出하더니 마침내 仰韶文化의 대표族인 夏를 쳐서 大統一을 이룩하고 定着된 農耕社會로 들어갔다.<sup>53)</sup> 그러니까 본래 두 줄기로 내려오던 東쪽의 龍山文化圈과 中原의 仰韶文化圈은 紀元前 약 20세기서부터 접촉을 갖다가, 18세기 중엽에는 龍山文化에 의해 合流하기에 이른 것이다. 敬祖와 神權을 숭상하는 殷과, 비교적 自然秩序와 人倫現

53) 費海嶸: 「重建殷史的部議」 中華復興月刊 第2卷 第7期, p.14, 15, 16, 17 참조.  
그리고 甲骨文字에 따르면 殷族은 早期에는 漁獵畜牧을 주로하다가 後期에 와서야 農耕으로 定着된 것 같다. 그것은 農字의 變遷으로 알수있는데, 처음 農字는 林字밑에 辰(이는 쟁기의 형상이다)字를 받혀서 쓰다가 森과 辰으로 변했고, 마지막으로 田字밑에 辰字를 받혀쓰게된 것을 증거로 추측한 것이다.

實에 관심을 가졌던 夏의 만남은 보다 豊富한 文化로 발전하여 급기야 오늘의 中國文化를 發祥시킨 原初形態를 이룬 셈이다.

이는 Indo Arians 들이 恒河流域에서 이미 定着해서 文化를 構築하고 있던 Dravidians 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Arians 중심의 印度文化를 形成하지만 결국 文化의 脈은 오히려 Dravidians 들의 遺産을 주로 하고 自己 것을 加味한 形態로 전개되었던 것과 동일하다 (Indo Arians 는 游牧民族이고, 父系中心이었으며, Dravidians 들은 母系中心의 定着生活을 하고 있었다 함). 비록 殷이 夏를 滅하기는 했으나, 游牧生活을 하였고 母系中心사회를 이루었던 그들은 定着된 農耕生活을 영위하던 夏文化를 그대로 이어받아, 자기 固有의 敬祖와 神權崇상의 文化思想을 加味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면 中國文化의 淵源을 이제는 周朝에다 두지 않고, 殷·商까지 끌고 올라가는 견해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 가장 믿을 만한 증거로는 殷廬에서 발굴된 甲骨文文字가 그동안 中國歷史를 통해 變形發展하면서 사용되어 내려오던 이른바, 「漢字」와 그 脈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며,<sup>54)</sup> 中國文化의 특징이라고 하는 農耕爲主의 自然理解, 祖上崇拜, 人倫道義 등이 모두 殷의 大統一 이후 形成된, 즉 仰韶文化와 龍山文化가 合流된 以後에 새롭게 統合發展된 文化에서 緣由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湯의 易姓革命

湯은 中國歷史上 최초로 易姓革命을 일으켜 무릇 無道한 政權은 人民의 信賴를 잃고 有德한 者에 의해 代替된다는 教訓을 남겼다. 湯은 夏桀때 하나의 諸侯(酋長)로서 德으로 人望을 얻었으므로 勢力이 날로 擴大되어 같은 諸侯이면서도 無道한 諸侯를 征伐할 수 있

54) 屈萬里: 「甲骨文的發現, 傳播及其對學術的貢獻」, 復興文化月刊, 第2卷 第11期, p. 86; 「現今的文字是從甲骨文一步一步地 演變而成的, 則是毫. 無問題」.

었다. 史記, 殷本紀에 의하면: 「湯은 諸侯를 征伐했다. 葛伯(湯의 隣國)이 不祀하므로 湯이 이를 쳤다. 湯이 말하기를: 『사람은 물을 들여다 보고 자기 모습을 안다. 이와같이 백성의 모습을 보면, 政治의 잘잘못을 안다』하니 伊尹이 이 말을 듣고 道를 말해줄만한 재목이라 여겨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백성을 자식처럼 알아야 한다는 이치를 일러주고 격려했다」<sup>55)</sup>는 기록이 있다. 湯이 夏를 치는데 성공하여 殷朝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伊尹의 공이 크다.

湯이 夏桀을 칠 때에 群衆 앞에서 宣誓한 이른바 湯誓는 유명하며 中國歷代에 걸쳐 反正이 일어날 때마다 쓰인 檄文의 효시가 되었다. 그 내용을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백성들이여! 모두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감히 亂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夏桀이 罪가 많아 하늘이 그를 죽이려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 임금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農事를 버리고, 어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내 너희 무리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익히 알고 있지만 夏桀이 罪가 많으니 이를 버려둔다면 하늘이 怒하실 일이라, 하늘이 무서워서도 감히 치지 않을 수 없노라. 지금 너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夏桀이 罪가 있다면들 우리가 어찌 하겠느냐고』. 그러나 夏桀이 백성들의 힘과 재산을 다 뺏아다가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일삼으니 夏禹 전체에 害를 당하지 않은 집안이 없으니, 백성들은 자포자기가 되어 나라에 협조하지 않고 말하기를, 『저 해(曰)는 언제 없어지나? 내 너와 더불어 함께 亡하리라』고 이를 갈고 있다. 夏德이 이에 이르렀는데 내 어찌 치러가지 않으리! 다만 너희들에게 바라노니, 나

55) 司馬遷, 史記, 殷本紀: 「成湯自契至湯八遷, 湯始居亳, 從先王居. 作帝諸, 湯征諸侯. 葛伯不祀, 湯始伐之. 湯曰: 豫有言人, 視水見形, 視民知治不. 伊尹曰: 明哉, 言能聽, 乃進君國子民爲善者……」.

56) 伊尹은 殷의 賢相. 有莘氏의 들에서 농사를 짓다가 湯의 三聘을 받고 일어나 湯을 도와 夏를 滅하고, 殷의 天下가 되게 했다. 湯은 그를 阿衡이라고 높여 불렀다.

한 사람을 도와 하늘의 罰을 이루도록 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크게 賞 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만일 너희들 중에 나의 이 宜誓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나는 용서없이 그를 죽이리라.」<sup>57)</sup> 湯의 이러한 宜誓는 동요하는 民心을 휘어잡고, 많은 呼應을 받았다. 이에 湯은 당당하게 夏로 쳐들어와 夏桀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리하여 諸侯들의 服從을 받고 天子位에 나아가 四海를 定했다. 이는 湯이 平素 德을 쌓아 民衆과 諸侯들의 信任을 받았기 때문이지 夏桀이 無道하여 失政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것이 天下人心은 有德한 者에게 돌아가고, 失德한 君主와 衰德한 朝代는 반드시 새로 일어나는 참신한 세력에 의해 代替된다는 前例와 教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湯을 中國道統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德으로 易姓革命에 成功했기 때문이고, 伊尹이 높이 評價되는 것도 賢臣이 되어 그를 도와 大業을 成功시켰기 때문이다.

## 2) 殷文化의 概觀

傅斯年の「夷夏東西說」<sup>58)</sup>이 나온 뒤부터 殷의 起源地는 山東地方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근래 中國考古學界의 발굴성과에 의하여 이說의 근거는 무너져가고 있다.<sup>59)</sup> 그것은 黑陶文化의 東方起源說이 이제는 中原起源說로 옮겨갔기 때문인데, 이것은 결국 中國文化가 中原에서 發祥했다는 中國文化起源一元論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一元으로부터 東·西 두갈래로 分離發展한 것이 傅斯年の 夷夏東西說을 可能케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筆者는 여전히 傅씨의 夷夏東西說을 採擇한다. 왜냐하면 夷夏文化의 性格差異는 一元에서 二元으로 分離되면서 부터 形成되었기 때문이다. 자기 다른 性

57) 尚書·商書·湯誓 全文移譯.

58) 傅斯年：類來西說傅孟眞先生 學術論文集，原載 中國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集刊外編」.

59) 尹乃茲：「商王朝史의 研究」第二章「商族의 起源에 관한 考察」참조.

務으로 形成, 發展됐던 夷夏文化는 湯의 滅夏로 中原이 大統一을 기하자 다시 大團圓의 一元으로 統合 되었으므로, 殷代文化가 결국 오늘날 中國文化의 發軔地라고 보는 說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60)</sup>

### (1) 殷文化의 轉換과 擴張

① 母系中心에서 父系中心으로: 대개 農耕社會에서는 父系中心이고 游牧社會에서는 母系中心이다. 그러나 民族移動時와 같이 集團이 組織의 行動을 必要로 할 때는 父系中心으로 바뀐다. 殷族도 中原으로 들어오기 이전은 母系社會였다가 들어온 뒤로는 父系社會로 바뀐 것이다. 父系社會의 특징은 「父死子繼制」요 母系社會의 특징은 「兄終弟及制」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殷의 先祖 有娥氏의 딸 簡狄이 목욕하다가 玄鳥가 떨어뜨린 알을 삼키고 契를 生産했다는 卵生說<sup>61)</sup> 자체가 無父之子, 즉 母系社會의 必然的 現象이다. 湯이 滅夏한 뒤 湯이 죽자, 夏禹의 「父死子繼制」를 따르지 않고, 殷의 風俗대로 「兄終弟及制」를 시행한 것만 보아도 殷은 오랜 母系社會의 傳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2)</sup> 또한 殷의 祖上神중에 健康을 맡고 있는 神이 女神이었음도 주의할만 하다. 그러나 이 制度는 祖丁 南庚에 이르러 夏族과 마찬가지로 父死子繼制로 바뀌었다.

- 
- 60) 이것은 筆者의 私見이므로 앞으로 古代史가 더 研究된다면 變할 수도 있는 것임을 덧붙여 둔다.
- 61) 史記, 殷本紀: 「殷契, 母曰簡狄, 有娥氏之女, 爲帝嚳次妃. 三人行浴, 見玄鳥墮其卵, 簡狄取吞之因 生契」. 이 卵生說은 高句麗 始祖 東明王의 卵生說과도 통하여 韓族과 東夷(殷)族을 同元으로 보는 根據가 되기도 한다. 이 외에 禮記, 檀弓에 「夏后氏尙黑, 大事斂用昏, 戎事乘驪(黑色馬) 牲用玄. 殷人尙白, 大事斂用日中, 戎事乘輪(白馬), 周人尙赤, 大事斂用日出, 戎事乘騂(赤馬) 牲用騂」이라고 있어 舜族의 崇尚白衣 또한 殷族의 風尙에서 온것으로 본다.
- 62) 禮記, 檀弓에 「微子舍其孫贖而立衍」라 있고 鄭玄註에 「微子嫡子死, 立其弟衍, 殷禮也」라고 있으며, 역시 史記 殷本紀에 「廢嫡而立諸弟子, 弟子或爭相代立」이란 記錄이 있다. 이는 殷의 相繼制度가 「兄終弟及」인 母系中心文化에서 나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② 青銅器를 통해 본 技術과 藝術性：中國文化는 殷代에 접어들면서 飛躍的인 發展을 하는데, 그 하나가 青銅器의 出現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古代文化의 尺度는 工具의 強銳度에 있다고 본다. 石器보다 堅強한것이 玉器요, 玉器보다 銳利한 것이 銅器다. 그러므로 青銅器의 발달은 殷이 中原을 위시해서 보다 넓은 領域을 支配할 수 있었던 原因으로 보기도 한다.<sup>63)</sup>

殷時期에는 그 유명한 甲骨文字 외에도 陶器, 玉器, 石器, 角器 등에 모두 文字 또는 紋樣이 새겨져 있으며, 銅器의 製作術도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었다. 殷期の 祭器, 武器, 裝飾品, 用具 등은 모두 青銅로 冶鑄되어 있고, 彫刻術과 圖案美가 놀랄만큼 발달해 있다. 이제 殷나라의 繪畫와 彫刻의 特性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두 方面에서 考察할 수 있는데, 하나는 古代思想을 反映하는 象徵主義的 裝飾紋樣이요, 또 하나는 古代生活을 反映하는 自然主義的 圖畫形象이다.

가. 圖騰의 象徵的 表現：殷族도 例外없이 圖騰(Totem)社會로부터 氏族社會로 발전한 것이라 볼 때, 그들의 象徵形象의 繪畫는 다분히 氏族的 象徵과 동시에 宗教的 意義를 갖는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들의 浮彫에는 牛, 羊, 虎, 鹿, 龜, 蛇 등 動物形象이 많은데 모두 鳥爪型足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심지어 人面을 浮彫한 方鼎의 경우, 얼굴 양측에 새두마리의 발을 安排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한 象徵的 意味를 갖는다. 이는 圖騰의 象徵形象과 氏族的 象徵形象을 裝飾藝術 중에서 同時에 表現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殷族의 圖騰은 玄鳥, 즉 鳳이다. 즉「새」가 殷族의 圖騰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鳥瓜가 殷族共同의 信仰對象이었다고 하겠다.

63) 董作賓：「中國古代文化的認識」大陸雜誌 第三卷 第12期, 참조.

殷墟出土銅器는 百分之二十의 錫이 포함되어있었다고 한다. 銅礦은 滇黔川 및 兩湖에 散在해있고, 錫은 雲南, 兩廣, 江西, 湖南 등지에서 생산되며, 王·亡 新疆에서 나는것으로 그 來源범위가 상당히 넓다. 또한 貨幣로 썼던 貝는 南海産이요, 占卜에 썼던 龜甲은 대부분 南方에서 왔다 한다.

나. 對稱的, 均齊感覺: 中國文化的 中心概念은 「中」字요, 그것이 美的으로 表現될 때 對稱을 構成한다. 이는 定着한 靜態的 農耕文化와 畜牧生活에서 얻은 感覺의 會合인것 같다. 즉, 畜牧의 경우, 그 表皮를 벗겨서 펴놓던가 걸어놓고 보면 모두 두 측면이 合해서 하나의 正面을 이루는 中的 對稱, 均濟의 感覺을 준다. 이러한 農耕社會의 安定心理와 연결되어 나타난 것 중 代表的인 것이 侯家莊 殷代大墓에서 出土한 木器遺痕이다. 이러한 對稱觀念이 발달해서 殷나라 特有的 饗饗(獸面)紋과 夔龍紋이 된 것이다.<sup>64)</sup>

이렇게 보면 앞의 圖騰의 象徵的表現은 殷의 氏族神 崇拜思想으로 深化되고, 뒤의 對稱的 均齊感覺은 殷을 비롯해서 以後 中國建築藝術 전반에 걸쳐 한 특징을 이룬 對稱之美의 原流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는 藝術 자체를 論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形式과 象徵을 통해서 殷의 宗教와 思想을 살펴보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다. 비록 堅強附會한 면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 또한 哲學思想을 抽出해 내는 한 方法이기에 제시해 보는 것이다.

## (2) 甲骨文에서 본 曆法과 占卜

1928년 殷墟에서 발굴된 甲骨文은 약 12만 片, 거기에는 盤庚이 都邑을 安陽으로 옮긴 B. C. 약 1,400년 부터 殷滅前 약 1,100년, 그러니까 약 300년 간의 殷나라 王系, 祭祀儀式, 占卜, 天文曆法과 宗法禮制 등이 기록되어 있어 殷나라 歷史를 이해하는데 폭넓은 자료가 되고 있다. 甲骨文의 單字는 2,000字를 넘고, 지금까지 解讀된 것 반도 약 1,400字에 달한다. 2,000餘字의 單字가 一時에 創制

64) 袁德星: 「商周時代的 繪畫觀」 中華文化月刊 第五卷 第二期 참고.

여기서 筆者는 論者의 暗示만 받았을 뿐 主觀的으로 理解하고 判斷한 면이 많음을 밝혀 둔다.

되었을리 없고, 그러한 文字가 갑자기 發明되었을리 없으나, 그 文字의 沿革은 아직까지 霧中の 謎로 남아 있을 따름이다.

가. 殷나라 曆法: 曆法은 이미 唐堯때 그 雛型이 形成되었으므로 殷曆이 나왔다해서 크게 새로울 것은 없으나, 실제로 大十甲子를 날자에 붙여가면서 時, 日, 月, 年을 기록해 갔다는데, 놀라운 발전이 있는 것이다. 董作賓의 研究 結果에 의하면 거기에는 月蝕과 星名이 기록되어 있고, 紀時, 紀日, 月, 年, 閏 등이 정연하게 計算되어 있었으며, 1年을 12개 月로 나누었는데 月에는 大小가 있어 大月은 30日 小月은 29日로 하고 閏月을 年尾에 두어 13月이라 稱했다고 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干支紀日法을 쓰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에 이르기 까지 誤差가 없다하여 中國文化중 永恆持續性의 본보기로 내 세워지고 있다.<sup>65)</sup>

나. 占卜內容과 老彭의 存在: 甲骨文이 거의 卜辭에 속하는 것이므로, 殷代生活에 있어서 占卜은 중요한 위치를 占한다. 占卜內容을 분류해 보면: 卜祭. 306, 卜告. 15, 卜享. 4, 卜出入. 128, 卜漁獵. 130, 卜征伐. 35, 卜年. 22, 卜風雨. 77로 거의 모든 行動을 行動 이전에 卜筮에 물어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6)</sup> 그리고, 이 神秘스러운 巫師의 대표적 人物이 바로 孔子가 私淑하던 老彭이었음도 밝혀졌다.<sup>67)</sup> 費海璣의 研究에 의하면: 「殷代에 나이 많은 神秘人物이 있었으니 그는 神權을 掌握한 巫師였다. 廩辛, 庚丁時代의 卜辭에서 그의 存在는 確認되었다. 좀 자세히 말한다면, 武丁시대의 老彭은 아직 少年이었으나, 廩辛 때의 그는 120여세의 老人이었다. 老彭의 卜辭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彭字만 刻하고 한 마디도 쓰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그가 日常職務로 10일에 한번씩

65) 董作賓: 「中國古代文化的認識」, 大陸雜誌 第三卷 十二期 참조.

66) 容肇祖: 「占卜의 源流」 古史辨 第3冊上編, p.265.

67) 論語, 述而篇에 「子曰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라고 있는 老彭이다.

占을 치는 卜筮를 행했는데 이는 每癸日에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묻는 것은 주로 禍福이었으며,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점을 친 일도 있다. 세번째는 특수사건이 생기면 다른 巫師에게 卜筮를 치게 하고, 자기는 이 특수사건을 점친다. 넷째는 당시 殷王이 사냥하기 좋아 한 것은 梅花鹿이며, 이 때 침략해온 敵은 羌人으로 약 30명씩 동시에 공격해왔다는 것 등이다.<sup>68)</sup> 이로써 老彭은 殷의 神秘人物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는 모든 것을 卜筮에 의해 결정짓는 당시에 있어서 그 卜筮를 掌握한 巫師였다. (大僧不臣이라는 말과 같이 巫師의 地位는 王에 아래하지 않았다. 그의 存在는 마치 周나라가 道德人格의 代表者로 내세운 文王처럼, 殷에 있어서 神權의 代表人物이었음에 틀림없다. 孔子는 殷의 後裔다. 그러므로 그가 老彭을 私淑했음은 당연한 도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祖上崇拜, 神權信仰, 卜筮行爲 등은 殷代의 中心思想이었으니가 말이다.

### 3) 殷代의 宗教 - 神權觀念과 祖上崇拜

어떻게 보면, 夏代의 素朴한 自然主義가 形成된 뒤 殷代에 와서 神權觀念의 宗教思想이 抬頭한다는 것은 哲學思想 發展에 逆行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思想 자체에서 보더라도 現實爲主의 自然主義, 實用主義는 그 思想의 深度가 아주 얕아서 貧弱한 文化를 낳기 쉽다. 그런면에서 殷代의 宗教思想은 中國文化의 높은 境地와 깊은 思想, 그리고 넓은 幅을 더하는데 寄與했으면 했지, 결코 逆行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뿐만아니라 실제로 殷의 神權觀念과 祖上崇拜 思想은 滅夏 以前에 이미 구비하고 있던것으로 滅夏 以後에 비로소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불필요한 杞憂에 불과하다.

68) 費海環: 「重建殷史的疑議」 中華文化復興月刊 第二卷 第七期, p.14, 15 참조.

張光直의 龍山文化研究는 이러한 면을 보충해주는 유력한 說을 提示하고 있다. 즉, 殷은 中原文化圈으로 들어오기 이전, 龍山文化時期에 이미 祖上崇拜思想을 갖고 있었고, 그 思想은 殷을 強盛하게 하여 끝내 中原天下를 支配하는데 根本的인 作用을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祖上崇拜 思想은 결국 種族繁殖, 福祉追求, 그리고 部族의 組織과 團結을 促求하는 契機가 되었기 때문이다.<sup>69)</sup> 그러므로 殷代의 宗教, 즉 抽象的 神權概念이나 祖上崇拜를 思想의 落後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이 中國의 藝術을 낳고, 中國의 永恆生命精神, 光宗耀祖등 向上追求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1) 神鬼觀念과 氏族神

先民들의 神鬼, 物魅등 多神的 迷信思想은 民知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淨化되어, 多神에서 一神이 抽出되고, 그 一神은 마침내 至高神으로 받아들여 宗教의 信仰對象으로 安着된다. 이러한 神鬼觀念의 變化는 그대로 人間現實에 영향을 주어 본래 平等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차츰 階層을 형성하고 끝내는 君王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觀念의 世界와 實在世界는 그 形態가 相比例하는 셈인데, 이 至高神의 出現이 빠른 部族, 즉 君王이나 酋長이 일찍부터 推戴되어 많은 무리의 求心點이 되고 무리를 이끄는 主力이 되는, 組織과 團結力을 갖춘 部族이 強大한 힘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神政 (Theocracy) 時期라 한다.<sup>70)</sup> 古代 中國의 여러 部族 중 殷族이 가장 빨리 이러한 至高神을 받들고, 自族의 우두머리를 뽑아 部族의

69) 張光直: 「中國遠古時代 儀式生活的 若干資料, 中國, 國立中央研究院, 民族學研究所集刊, 第九期 참고.

70) 王國維의 말에 따르면, 殷商時代에 이미 天帝觀念이 있었는데, 처음 殷人들은 帝를 바로 그들의 祖上神으로 대하여 그것이 民族神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卜辭중에 비록 「天」은 있으나 그것이 바로 「帝」로 간주되어 殷人의 崇拜대상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라 하였다. 그것은 卜辭중 天에 대한 祭祀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근래 筆者의 友人 李杜教授는 至高天帝觀念의 出現은 마땅히 殷以前이라고 주장한다.

自存과 繁營을 도모한 것 같다.

이렇게 多神에서 一神, 卽 至高神으로 發展해서 생겨난 概念이 「天帝」인데, 처음 殷人들은 자기네 祖上神이 바로 「天帝」라고 믿어 祖上神에 대한 崇拜가 바로 至高神을 信奉하는 것이었으며, 이 祖上神을 奉祀하는 자가 바로 現世의 至高權力者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 部族이 있어 그들도 그들 나름의 部族神을 섬긴다고 할 때, 그들 神은 諸神으로 간주하고, 殷의 氏族神만을 至高神이라 내세우는 것은 바로 現世에서 殷族이 여러 部族을 支配하고, 殷王이 天下의 共主로 君臨하기 때문이다. 이에 中國에도 古代에는 選民思想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殷族만이 天下를 支配할 수 있고, 그러기에 殷의 氏族神 즉 祖上神만이 至高神이고, 그 至高神에 祭祀하는 자가 王이라는 생각이다.<sup>71)</sup>

그러면, 祖上神의 存在와 功能은 어떤 것인가? 董作賓에 의하면 「帝」 또는 「上帝」, 즉 祖上神은 風·雨 등 氣候를 장악하고, 饑饉을 관장하며, 禍福과 吉祥을 내리고 심지어 生死與奪權까지 갖는다.<sup>72)</sup> 그러므로, 殷人들은 이렇게 全能한 祖上神을 잘 받아들여 그 神의 威力를 빌어서 他族을 制壓하고 自族의 保護와 強盛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겠다. 결국 나라의 가장 重大事가 바로 祖上神, 즉 殷의 氏族神을 섬기는 일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祖上神을 숭배하고, 그에 의해 吉凶禍福이 降授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死後 靈魂의 存在를 믿는 것이라 하겠다. 그 靈魂은 生時보다 더 큰 作用力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러므로 殷人은 生時보다도 더 死人을 통하여 原葬하고, 경건하게 여러가지 祭享을 올리는 것이

71) 公羊傳, 傳公引年條에 「天子祭天, 諸侯祭土」라 있고, 國語, 晉語子產條에 「天子祀上帝, 公侯祀百辟」이라고하여 天上帝와 같은 至高唯一의 神은 天子王이 祭祀하고, 其他 山川등 여러 神은 1公侯들이 祭祀 지낸다고 되어있다.

72) 董作賓: 「中國古代文化的認識」大陸雜誌 第三卷 第十二期 참조.

다.<sup>73)</sup>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남의 祖上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네 祖上만을 섬기는 점이다. 그것은 그 祖上 역시 자기의 子孫만 돌보고, 남의 子孫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祖上和 子孫간의 親屬的 聯繫性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sup>74)</sup> 이 直系의인 崇拜와 降授 觀念은 더욱 自己部族만의 強盛을 要求하게 되어, 심지어 남의 部族 사람들을 잡아다가 祭物로 차려놓고 殷族만이 永遠히 霸權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비는 排他的 心理와 行爲까지 誘發하게 되었다.

祖上神이 至高唯一한 存在로서 그 威嚴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대상이 되다보니 그를 祭祀지내는 殷王 또한 백성들에게 生死與奪權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存在로 부각되어 權力의 橫暴가 행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自己 部族만을 알고 남의 部族을 排他, 異質 視하므로써 共存意識이 결여되어 진정한 大團合을 이룰 수 없는 약점이 나타 났다. 그러므로, 殷의 神權觀念과 祖上崇拜는 당초에는 殷을 強盛하게 하는데 크게 作用했으나, 天下의 共主가 된 뒤에도 여전히 그러한 狹隘한 部族主義를 固守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것이 결정적인 弱點이 되어 殷의 滅亡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 (2) 氏族神(祖上神)崇拜思想의 逆機能.

氏族神이 至高唯一하고 絕對權能의 存在로 崇拜됨에 따라 그를 祭祀지내므로써 그와 가장 가까이에서 그에게 祈禱를 할 수 있는 王의 存在도 백성에 대해서 마치 祖上神과 같은 威權을 갖게 되었다. 같은 人間이면서 그 權能에 있어서 天壤의 差를 이루므로써 統治者와 被統治者의 관계는 마치 神과 사람의 관계 만큼이나 判異하게 되었다. 王이 저지르는 非人間的 橫暴, 祖上神을 憑藉한 罪惡의 非行, 이러한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 장치도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그저 그러한 횡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심한 경우 죽임을 당

73) 上同.

74) 張光直: 「中國遠古時代儀式生活的 若干資料」 中央研究院 民族學 研究所集刊 第九期.

하기 까지 하였으니 祖上神에 副應한 存在로서의 王位와 王權이 가져온 逆機能은 대단히 可恐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逆機能이 集約되어 터진 것이 紂의 滅亡인 것이다.

紂의 罪行은 이미 天下에 알려져 더 말할 것은 없거니와,<sup>75)</sup> 그는 革命이 일어나 敵이 쳐들어 온다는 報告를 듣고서도, 祖上神의 靈驗만을 믿고 있다가<sup>76)</sup> 周武王에게 斬首 당하고 말았다.

### (3) 殷末三仁의 思想

殷末 三仁이란, 微子, 比干, 箕子를 말한다.<sup>77)</sup> 이 三仁은 殷末 紂의 臣下로 있으면서 君上에 대한 態도와 處世哲學이 자기 달랐는데, 이것은 당시에 君臣之義를 어떻게 보았는지 이해하는데 좋은 증거가 되므로 여기에 三仁들의 中心思想과 處身을 자세히 소개할까 한다.

① 微子の 「君臣之義, 可以去」說: 微子는 殷帝乙의 長子요 紂의 庶兄이다. 紂가 王이 되어 荒淫放蕩하여 政事를 어지럽히는지라, 여러번 諫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自決을 결심하고 太師少師인 箕子 比干과 의논했으나 뜻이 같지 않았다. 微子의 主張은 다음과 같다. 「父子는 骨肉關係로서 自然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버지가 허물이 있을 때, 자식은 이를 세번 諫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울면서 따를 수 밖에 없지만, 君臣은 義로 맺어진 社會契約 관계이므로 君非를 세번 諫해 듣지 않으면 버리고 갈 수 있다」<sup>78)</sup>고 하여, 紂를 버리고 달아나 周武王에게 投降했다. 微子에 따

75) 史記, 殷本紀: 「…帝紂資辨捷疾, 聞見甚敏, 才力過人, 手格猛獸, 知足以距諫, 冒足以飾非, 矜人臣以能高, 天下以擊, 以爲皆出己之下, 好酒淫樂, 嬖於嬖人, 愛妲己, 妲己之言始從…以酒爲池, 懸肉爲林, 使男女僕, 相逐其間, 爲長夜之飲, 百姓怨望而諸侯有畔者, 於是紂乃重辟刑, 有炮烙之法…」。 이것이 紂의 사람됨과 行惡한 내막이다.

76) 史記, 世家第八, 宋微子: 「祖伊以周西伯, 昌之修德滅, 紂國權, 禍至以告紂, 紂曰我生不有命在天乎, 是何能爲, 於是微子展紂終不可諫, 欲死之…」.

77) 論語, 微子篇에 「微子去之, 箕子爲之奴, 比干諫而死, 孔子曰殷有三仁焉」이라고 있다.

78) 史記, 宋微子世家第八: 「微子曰, 父子有骨肉, 而臣主以義屬, 故父有過, 子三諫, 不聽則隨而號之; 人臣三諫不聽, 則其義可以去矣於是太師少師乃勸微子去遂行·周武王伐紂克殷, 微子乃持其祭器造於軍門, 肉袒面縛」。 여기서 한마디 할것은 紂를 버리고 간것까지는 이해가 가나 周武王에게 자진 投降까지 한것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

르면 五倫 중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父子之親과 君臣之義는 그 根本上 같지 않다. 즉 父子는 血肉으로 맺어진 自然關係이므로 영원히 바뀌거나 헤어질 수 없는 것이고, 君臣은 義理로 맺어진 社會(人爲)關係이므로 君이 義를 지키지 않으면, 臣도 義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漢代에 생긴 三綱思想에서 볼 때 크게 問題되는 주장이나, 合理的인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比干의 「以死爭諫」說: 王子 比干도 紂의 親戚이다. 比干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決然했다. 「임금이 허물이 있는데,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諫하지 않는다면 無辜한 百姓은 어찌하겠는가?」 이러한 신조에서 比干은 直言으로 諫했다. 이에 紂는 怒하여 말하기를 「내 들으니 聖人の 心에는 九竅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 보자」<sup>79)</sup> 하고 드디어 比干을 죽여 心臟을 파냈다. 比干의 이러한 「以死爭諫」說은 忠臣의 본보기로 추앙되어 三綱과 五倫이 政治附庸으로 利用된 뒤 사람들에게 많이 애송되었다. 比干의 主張에 따르면, 君臣之義는 父子之親보다 더 큰 負擔을 갖는 義理가 된다. 漢代以後 忠이 孝보다 于先하게 된 것도 그러한 思想의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 孝가 먼저냐, 忠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現實政權이라는 制約物 때문에 때로 本質以外的 技能的 측면에서 사람을 眩惑시킨 일이 많다. 본래 五倫思想은 雙務관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더우기 君臣관계는 孟子도 말했듯이<sup>80)</sup> 相對的 關係인 것이니 어찌 絕對關係, 그것도 上下從의인 것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그러나 比干의 경우 無辜한 백성 때문에 끝까지 爭諫한 것은 忠君보다도 義면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79) 上同, 「君有過而不以死爭, 則百姓何辜, 乃直言諫紂. 紂怒曰: 吾聞聖人之心有七竅, 信有諸乎, 乃遂殺王子比干, 剖視其心」.

80) 孟子, 離婁: 「孟子告齊宣王曰: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讎」. 論語八佾: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이는 모두 君臣關係를 相對的이고 雙務的으로 보았다는 증거이다.

③ 箕子の 「居隱待機傳道」說 : 위의 두 사람이 자기 극단을 걸었다면 箕子は 그 中을 택했다 하겠다. 箕子は 紂의 庶叔이요 그의 太師 (스승)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자기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諫해서 나라가 다스려진다면 죽어도 한스러울 것이 없지만, 목숨만 잃고 나라도 건지지 못한다면 이는 버리고 감만못하다. 또 남의 臣下가 돼서 諫하다 듣지 않는다고 해서 도망쳐 버리면 이는 임금의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되니 나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하는 짓은 할수가 없다」<sup>81)</sup>하고 스스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짓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거문고를 즐겼다. 그 거문고의 곡조를 箕子操라고 일컫는다. 箕子が 죽지 않고 숨어 살면서 때를 기다린 것은 天下에 道를 傳하기 위해서 였다. 箕子は 당시 대표적인 學者요 賢者였다. 한 나라가 興亡하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다. 그 보다는 道가 세상에 퍼지느냐, 衰微하느냐가 重要的 것이다. 그러므로 箕子は 끝까지 살아 남아 周武王에게 洪範九疇를 傳해 준 것이다. 天下에 道를 傳한다는 使命에서나 文化의 持續을 위해서 그 繼承者를 찾아 傳했다는 면에서 볼 때 箕子の 功德은 三仁의 으뜸이라 하겠다.

#### 4) 夏殷思想의 集成 - 洪範九疇

##### (1) 洪範九疇의 授受

周武王이 殷紂를 몰아 낸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殷의 遺老 箕子를 찾아가서 歷史文化의 傳統으로부터 우러나온 統治哲學을 물은 것이다. 周武王은 度量이 넓은 사람이었다. 「말 위에서 天下를 얻을 수는 있으나 말 위에서 天下를 다스릴 수는 없다」<sup>82)</sup>는 이치를 알

81) 史記, 微子世家第八: 「今誠得治國, 國治身死, 不恨爲死, 終不得治不如去……爲人臣, 諫不聽而去, 是彰君之惡, 而自說於民, 吾不忍爲也, 乃被髮佯狂而爲奴, 遂隱而 鼓琴以自悲, 故傳之曰箕子操」.

82) 史記, 陸賈傳: 「陸生時前說稱詩書, 高帝屬之曰: 適公居馬上而得之, 安事詩書? 陸生曰: 居馬上得之, 焉可以馬上治之乎?」.

왔기 때문에, 敗亡한 敵國의 象徵的 精神의 遺老, 말하자면 俘虜로 볼 수 있는 箕子였지만, 지극한 禮를 갖추고 찾아갔던 것이다. 箕子 또한 仁人이라 사사롭게는 자기네 나라를 侵伐한 원수지만 武王이 찾아와 묻는 것이 天下의 大道요, 살아있는 백성을 위한 것 인지라 歷史文化의 道統을 傳授하는 입장에서 武王에게 이른바 「洪範九疇」를 들려 주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이 歷史的인 對話를 尙書 洪範篇 첫머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武王이 殷을 滅한 뒤 箕子를 방문했다. 武王이 말하기를: 『天下는 安定되고 백성들은 서로 화합하여 삶의 터전을 되 찾았으나, 나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하는지 그 大道를 모릅니다』 하니, 箕子が 대답하기를: 『옛날에 鯀이 洪水를 다스림에 天文과 地理에 어두어 물길을 막고 五行을 잘못 베풀어 더 큰 피해를 입게 했다. 帝는 그가 鴻範九疇 등 倫常秩序에 따르지 않은 것에 크게 震怒하여 鯀을 죽이고, 그의 아들 禹에게 다시 治水를 맡겼다. 天은 이에 禹에게 鴻範九疇의 倫常秩序를 나리니, 禹는 이것으로 治水를 하고 天下를 다스렸다』<sup>83)</sup>고 하였다.

여기서 보면, 洪範九疇는 마치 하늘에서 내린 天授的인 神秘性을 띤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宗教的 啓示錄 (Book of Revelation)이 아니고, 中國先民들이 오랜동안 黃河流域에서 살면서 氣候에 맞추어 農耕을 하고, 人知를 啓發하고, 人德을 修行하며, 人倫을 숭상하고, 社會, 國家를 形成하여 여러가지 官署와 法典을 만들면서 다스려온, 人間의 體驗과 歷史文化의 蓄積을 하나의 學術思想體系로 集約한 遺言書 (Book of Testament)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遺囑은 箕子 자신의 것도 아니요, 오랜 세월 傳授를 거듭하다가, 夏禹

83) 史記, 宋微子世家第八: 「武王克殷, 訪問箕子, 武王曰: 於乎維天隱定, 下民相和其居, 我不知其常倫所序, 箕子對曰: 在昔鯀陞洪水, 汨陳其五行, 帝乃震怒不從洪範九等, 常倫所教, 鯀則殛死, 禹乃嗣興, 天乃錫禹洪範, 九等常倫所序」。 이 말은 尙書, 洪範篇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고 보면 司馬遷이 尙書에 根據해서 記錄했음이 분명하다.

때 이르러 비로소 하나의 體系를 이루고, 또 실지 實行에 옮겨 보므로써 法典化 (Codify)된 것이다.

## (2) 洪範九疇의 哲學思想

洪範九疇은 尙書周書 洪範篇에 나오는 九個項의 大經大法을 말한다. 洪은 크다. 또는 모든 것에 根本이 된다는 形容詞고, 範은 法, 準據라는 名詞며, 九는 數詞, 疇는 무엇과 무엇을 區分해서 차례로 項目을 지우는 記錄要領의 하나로 오늘날 말하는 條項 (名詞)이다. 그러므로 이는 아홉 項目으로 된 大經大法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 아홉개의 大法 (基本法)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人間이 生活하는데 需要한 自然物質인 「五行」(金, 木, 水, 火, 土)이요, 둘째는 사람이 자신을 세우고, 外部와의 交通을 媒介하는「事」(貌, 言, 視, 聽, 思)요, 셋째는 人間이 社會 또는 國家를 經營하는데 必要한 部署 「八政」(食, 貨, 祀, 司空, 司徒, 司寇, 賓, 師)요, 넷째는 人間이 天文의 運行秩序를 把握하는데 必要한 曆法「五紀」(歲, 月, 日, 星辰, 歷數)며, 다섯째는 많은 무리를 다스림에 필요한 求心點과 그 求心點에서 萬民 萬事를 公平正大하게 處理하는 最高, 最適의 原理인 「皇極」이며, 여섯째는 사람들이 자기 個人의 處身에서 부터 남과의 관계, 또는 모든사람과의 共生同事에 臨함에「三德」(正直, 剛克, 柔克)이며, 일곱째는 큰 疑難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卜筮 또는 謀及을 하는 方法으로서의 「稽疑」(雨, 霽, 蒙, 驛, 克, 貞, 悔)이며, 여덟째는 農耕에 必要한 여러가지 氣候, 氣象의 파악「庶徵」(雨, 暘, 燠, 寒, 風, 時)이며, 마지막 아홉째는 人間의 運命에 관한 것으로, 五福(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과 그에 반대되는 六極(凶短折, 疾, 憂, 貧, 惡, 弱)이다. 이제 이 九疇를 理論의으로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五行: 五行은 金木水火土 五材를 말한다. 이는 모두 人間

이 生活을 營爲하는데 不可缺할 資料 또는 工具다. 이렇게 볼 때 物質生活상의 需要品, 即 具體的이고 切實한 것이라는 외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九疇 중에 五行을 제일 먼저에 든 것은 어찌서 일까? 그것은 人間은 우선 生活의 供給來源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그를 需要에 充足시켜야만 모든 것의 基本이 되는 身體와 生命이 維持되기 때문이다. 그 후 이 五行, 金木水火土는 宇宙의 構成要素 또는 循環 生成하는 質能으로의 「氣」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당시로는 물은 下降하고, 불은 上升하고, 나무는 曲直하고, 쇠는 變形하며, 흙은 곡식을 심어 가꿀 수 있다는 素朴한 自然의 物理現象 또는 性質을 의미하거나, 五味점도의 의미를 띄고 있을뿐,<sup>84)</sup> 아직은 宇宙를 構成하는 物質의 五大要素라는 哲學的 意味까지로는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섯 가지 自然의 基本物質로써 人間生活에 需要한 것을 가르키고 있다는 것으로써, 결코 뒤에 대두된 陰陽五行 또는 天地五行, 五德<sup>85)</sup>五官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五行」은 이후 中國哲學史에 있어서 宇宙論, 또는 陰陽論·歷數論, 심지어 醫學·運命論 등에서 여러 層, 面으로 다양한 意味를 띄고 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복잡하고 重要한 概念임에는 틀림없다.

②五事: 五行이 人間外的 需要物質이라면, 五事는 人間 자신의 갖추어야할 精神과 또 取해야할 態度이다. 즉, 모습은 공손하게, 말은 信義를 지키고, 事物을 분명히 바르게 보고, 소리를 분명히 바르게 들으며, 생각은 슬기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sup>86)</sup> 이것이 人間이 비로소 動物의인에서 文化를 갖춘 人間의인 存在로 蛻變하는 첫걸

84) 周書, 洪範: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85) 여기서의 五官은, 耳, 目, 口, 鼻, 身 의 五官인데, 본래 五行의 뜻은 五材를 管掌하는 官吏를 의미했다. 즉 金正, 水正, 木正, 火正, 土正 등이 그것이다.

86) 周書, 洪範: 「貌曰恭, 言曰從, 視曰明, 聽曰聰, 思曰睿, 恭作肅, 從作乂, 明作哲, 聰作謀, 睿作聖」.

음이다. 人間이 이 五事를 갖추면 自然의 現象과 原理, 그리고 作用을 把握하는데 正確한 知識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을 경건히하고 居處를 肅穆히 하여, 安祥과 高尚을 期할 수 있을 뿐아니라, 對人關係, 즉 社會生活을 해 나감에 남과의 協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바로 人間의 人間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후에 倫理, 道德的 人格의 의미를 形成하는 原型이 된 것이다.

③ 八政: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또한 文化, 文明이란 몇 사람만이 모여 살아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農耕은 小集團으로 可能하지만, 그 農耕은 衣食需要를 充當하는 것일 뿐, 人間의 모든 需要와 欲求의 可能한 領域 全般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分業이 必要하고 각 分野의 功能을 會合, 分配하는 社會機能이 필요하다. 그리고 人間周圍에서 일어나는 天災地變, 또는 人間자들이 저지르는 禍亂 등은 少數人間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고 많은 사람이 모여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하는데, 이 共同事를 주관하는 主體가 國家다. 그리고, 社會國家를 영위하는데 必要한 基本部署가 八政이다. 八政은 다음과 같다.

食: 食糧生産을 管掌하는 官, 오늘의 農水産部에 해당.

貨: 生活必需品, 즉 工商品을 관장하는 官, - 商工部.

祀: 民族的象徴과 宗教的, 國家的 儀式을 管掌하는 官 - 文公部  
總務處.

司空: 土木建設을 담당하는 官 - 建設部.

司徒: 學生教育을 담당하는 官 - 文教部.

司寇: 治安을 責任지는 官 - 內務部.

賓: 外交를 담당하는 官 - 外務部.

師: 國防을 담당하는 官 - 國防部.

이는 오늘날의 政治行政組織과 機能이 演變해온 古代의 原型이라 하겠다.

④ 五紀：人間의 生活은 그것이 옛날 游牧 시대이건 農耕 시대이건 모두 自然의 循環運行에 따르고 氣候變化에 맞추어야 한다. 하루 生活에 있어서 밤에 잠자고 낮에 일하는 것,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매 가꾸고, 가을에 낱알을 거둬 들이고, 겨울에 쉬는 것 등, 이 모두가 季節과 日辰에 따르고, 맞추어서 起居, 行止, 作業을 하는 것이다. 이 生活의 時間單位, 時間의 循環周期는 個人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團體群衆과 社會, 國家의 生活에 있어서도 約束되고 節制되어야 하는 重要的 準據가 된다. 이는 現代工業社會에서도 마찬가지며, 더욱 細分化 되어 있다. 이 時間生活의 節度를 計算한 것이 五紀이다. 五紀의 單位는 다음과 같다.

星辰：하루를 12辰(時)로 나눈다.(1辰은 오늘의 2時間)

日：12辰을 合計한것이 1日이다.(晝夜의 한번 交替)

月：달이 한번 盈昳한기간, 즉 29日 내지 30일이 한달이다.

歲：12개월을 合計해서 한해가 된다.

歷數：이상의 歲序의 時間單位를 자기 착오없이 計算하여 一年 四季節을 되풀이 하면서 그 成歲를 積算해 가는 것이 歷數다. 이는 歷史의 紀年 根據가 되므로 人間生活의 持續性과 人事를 永遠히 繼傳시키는 計劃的 삶 또는 過去를 回想하고 現在에 誠實하며 未來를 展望하는 生命精神의 歸依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五紀는 위에 歷史意識을 갖게하고, 循環속에서 永遠을 찾게한 契機가 될 것이다.

⑤ 皇極：皇極은 洪範九疇 중에서 가장 核心이 되는 思想이다. 皇은 大의 뜻이 있고, 極은 中의 뜻이 있다. 그리하여 「皇極大中」<sup>87)</sup>

87) 五는 九의 中間數, 이는 九疇의 中心을 의미하며, 그 내용도, 大中之道를 세워서 九疇의 義를 行한다고 되어 있어, 九疇를 實行하는데 있어서도 基本이 된다. 鄭康成, 馬融注 참조, 象山金集 卷23, p.7, 「皇, 大也. 極, 中也. 洪範九疇, 五居其中, 故謂之極. 是極之大, 先塞宇宙, 天地以此而位萬物以此而有. 古先聖王, 皇建其極, 故能參天地, 贊化育凡民保之以作懿行, 息邪惡」.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易의 「大中以正」<sup>88)</sup>이라는 말뜻과도 通한다. 또 그 精神은 左傳成公條에 「民受天地之中以生」이라고 하고, 漢書谷永傳에 「建大中, 以承天心」이라고 한 것과 같이 人間이 天地의 生物之心을 稟受하여 生했으므로 그 지극한 本心(大中)을 操存(建)해서 다시 天地之心을 奉行함을 말한다. 이는 天地之大道이며, 爲人之本으로 中國哲學精神의 基本原則이 되었다. 이는 또한 中國先民들이 오랜동안 天地自然에 感觸하고 大天의 生恩과 萬物을 生成化育하는 偉大한 功能에 感謝하는 內心經驗에서 얻은 超越的 理想價値요, 生命精神과 意義에 대한 自覺인 것이다.

이러한 精神과 理想이 人間世에서 實現되는 場所는 國家요, 實現하는 中樞는 君王이요, 實現되어야 할 當體는 人民이다. 그러므로 皇極思想은 다시 王道政治, 즉 道德理想政治를 實現하는 最高의 標準, 내지는 模範이 되었다.<sup>89)</sup> 洪範, 皇極 本文을 옮겨보면: 「이른바 皇極이란, 하나의 至大公正한 標準을 세워서, 그것으로 五福을 거두어 끌고루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이다. 사람들의 努力이 이 標準에 부합되어야 비로소 維持되어가는 것이니 백성들 속에 놀고먹는 무리, 사사로이 結黨은 무리들이 없게하고, 모두 세운 標準에 따라 힘쓰게 하라……무릇 正直한 사람은 願한 奉祿을 받게하고,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우대하라. 만일 좋은 사람을 起用해서 國事를 돌보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를 하나의 罪惡으로 간주할 것이다. 不善한 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면 그들은 너에게 나쁜 일을 해 줄 것이니, 偏私하지 말고, 先王의 正義를 따를 것이며, 私心으로 偏好하지 말고,

88) 周易, 无妄卦, 王弼註: 「剛自外來而爲主於內, 動而愈健, 剛中而應, 威剛方正, 私欲不行, 何可以妄, 使有妄之道滅, 无妄之道威. …剛自外來而爲主於內, 則柔邪之道消灭: 動而愈健, 則剛直之道通矣: 剛中而愈則齊明之德著矣」. 이것이 皇極의 位置요 作用이다.

89) 朱子語類, 卷 27, p.15, 17, 23 참조: 「皇, 君也. 極, 標準也」, 「皇極二字, 皇是指人君. 極是指其身爲天下做個樣子, 使天下視之以爲標準」.

先王의 大道를 지킬 것이며, 나쁜 일을 하지 말고, 先王의 正路를 걸 어갈 것이다. 偏私가 없고, 朋黨이 없으면 王道는 蕩蕩할 것이며, 朋黨이 없고, 偏私가 없으면 王道는 平平할 것이다. 일을 업치락 뒷치락 하지 말고 마음을 公正하게 먹으면 王道는 正直할 것이다. 만 일에 이러한 標準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의 會歸할 곳을 얻으리라.」<sup>90)</sup> 이것이 이른바 王道요 蕩平政治라는 것이다.

⑥ 三德: 個人的 處世도 그러하지만 특히 君王은 政治에 臨함에 다음 세가지 德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正直과 剛克과 柔克이다. 만일 國家의 環境과 歷史의 條件을 돌보지 않고, 빈 口號로만 正義를 保障하면 이는 宣傳일 뿐 진정한 精神을 대표할 수 없다. 그러므로 公道를 말할려면 철저히 해야한다. 왜냐하면 武力과 野蠻이 正義를 破壞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무능과 나약함에서 正義가 침해받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正義를 지키는데는 剛克과 柔克 두 방법이 있다. 混亂과 戰爭時期에는 剛克해야 強暴를 물리치고, 正義를 維護한다. 속담에 「女子는 비록 弱하지만, 어머니는 強하다」는 말이 있다. 性格上的 柔者도 精神上的 強者가 되어 不公平한 處遇에 反抗하고 자기 權益(正義)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正直은 正直으로 대하고, 強暴한 자는 剛強한 精神과 勇氣로 制壓하고, 柔弱한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柔弱한 결점을 가진 사람은 剛強을 써서 補救하고, 너무 剛強한 결점을 가진 사람은 柔和로써 補救하는 방법도 써야 한다는 것

90) 周書, 洪範: 「皇極其有極, 欽時五福, 用敷錫厥庶民, 錫汝保極. 凡厥庶民, 無有淫朋, 人無有比德, 惟皇作極. ……人之有能有爲, 使黨其行, 而邦其昌, 凡厥正人, 既富方穀, 汝弗能使有好于家, 時人斯其事, 于其無好德, 汝雖錫之福, 其作汝用咎. 無偏無陂, 遵王之義; 無有作好, 遵王之道, 無有作惡, 遵王之路;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及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

91) 周書洪範: 「三德: 一曰正直, 二曰剛克, 三曰柔克. 平康正直, 繼不友剛克, 變友柔克, 沈潛剛克, 高明柔克」.

이다.

⑦ 稽疑：先民時代に 아직 人知가 發達하지 않고, 科學的 施設이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氣候, 氣象의 測定을 卜筮에 의존한 일이 있다. 비가 오고, 개이고, 안개 끼고 하는 것이다. 連絡, 交流, 吉祥, 凶禍 등을 점치는데, 앞의 五種은 龜卜, 뒤 二種은 蓍占을 쳤다. 그리고 옛날 占을 치고 그를 採擇해 쓰는 方法은 상당히 合理的이었다. 세 사람이 占을 쳐서 나온 결과 두 사람의 것이 같고, 한 사람의 것이 다르면 같은 두 사람의 것을 取한다. 또 큰 疑難이 있으면 먼저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고 혼자서 해결 못하면 大臣, 庶民들에게 물어보고, 거기서도 해결이 나지 않을 때 비로소 卜筮에 依存하고, 卜筮 결과도 모두가 同意해야 따르게 된다. 무조건 占을치면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sup>92)</sup>

⑧ 庶徵：農耕을 하는데 氣候條件은 절대적이다. 비 오는 것, 개인 날, 더움, 추움, 바람이 다섯가지가 모두 順調로워야지, 그 어느 하나도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豐年이 들 수 없다.<sup>93)</sup> 農耕社會에 있어서 人間의 作事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農事요, 政治는 그것을 指導하고 氣候의 徵兆를 미리 알아서 對備하는데 重點을 두어야 한다. 「立國要道在於測天」이라고 한 것과 같이 農耕社會에 있어, 氣候變化를 測定하는 일은 爲政者의 主要한 責任이다.

⑨ 五福六極：以上の 여덟가지 大法이 잘 행해졌느냐 못했느냐는 生民이 겪는 禍福如何로 판명된다. 五福을 갖추면 삶을 幸福하게 하는 것으로, 政治가 잘 된 것이고, 六極을 당하여 民生이 괴로우면 政治가 잘 되지 못한 증거이다. 五福은 첫째 오래사는 것, 들

92) 上同：「三人占則從二人之言。汝則有大疑，謀及乃心。謀及卿士，謀及庶人，謀及卜筮，汝則從，龜從，筮從，卿士從，庶民從，是之謂大同……」.

93) 上同：「歲月日時無易，百穀用成，×用明，後民用章家用不廢。日月歲時既易，百穀用不成，×用昏不明，後民用微，家用不寧。」

째 財物이 풍부한 것, 셋째 몸이 健康하고 마음이 平安한 것, 넷째 좋은 品德을 갖춘 것, 다섯째, 죽을 때 잘 죽는 것이며, 大極은 이의 반대되는 현상으로, 첫째 夭折하는 것, 둘째 병든 것, 셋째 근심 걱정, 넷째 가난함, 다섯째 罪惡을 저지르는 것, 여섯째 모든 것을 克服할 힘이 없이 弱함이다.<sup>94)</sup> 社會國家는 뒤의 大極을 撫恤할 責任이 있다. 그러므로 大極을 未然에 防止하는데 힘써야함은 물론, 大極現象이 나타났을 때 이를 도와 苦生을 덜하게 하는 데도 적극 힘써야 한다.

이상은 洪範九疇를 逐條 審味해 본 것이다. 이는 人間의 自己成立에서 부터 自然把握, 政治 部署의 布設, 個人生活, 社會生活, 그리고 農耕營爲를 위한 必要措施 즉, 測天, 稽疑 등, 모든 면을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皇極思想은 哲學精神과 理想實現의 兩面을 會一한 모든 布設과 措施의 根本이므로 깊은 意義와 價値를 지녔다고 하겠다. 이러한 文化的 遺産은, 殷은 亡했어도 새로 일어난 周나라에 傳授되어, 周나라의 倫理文化, 즉 人文世界를 創進하는데 基本設計가 되었다.

94) 上同：「五福：一曰壽，二曰福，三曰康寧，四曰攸好德，五曰考終命。六極：一曰凶短折，二曰疾，三曰憂，四曰貧，五曰惡，六曰弱。」